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UCI]I804:24011-200000263432

2012년 8월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논문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탐색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 영 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탐색

Explanation of the Meaning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2012년 8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 영 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탐색

지도교수 : 서 현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유아교육)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합니다.

2012년 4 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유아교육전공

김 영 보

김영보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합니다.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박 주 성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나 장 함 인
심 사 위 원	조선대학교	교수	서 현 인

2012년 6월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목 차

ABSTRACT ····· iv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문제 ····· 7

Ⅱ. 이론적 배경 ····· 8

A. 유아를 위한 그림책의 이해 ····· 8

B. 유아를 위한 죽음의 이해 ····· 15

Ⅲ. 연구방법 ····· 33

A. 분석대상선정 ····· 33

B. 내용분석 ····· 34

C. 연구절차 ····· 35

Ⅳ. 연구결과 ····· 36

A.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 ····· 36

B.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 62

C.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 87

Ⅴ. 논의 및 제언 ····· 110

A. 논의 및 결론 ····· 110

B. 제언 ····· 121

참고문헌 ·····122
부록 ·····130

표 목차

<표 1>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 ·····61
<표 2>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주요개념 범주 ····· 86
<표 3>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109

ABSTRACT

Explanation of the Meaning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Kim, Young-bo
Advisor : Prof. Seo, Hyun, Ed. D
Major in Child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osun University

This study purposed to analyze the meanings of death appearing in picture books on the target of picture books related to death on the premise that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objects of death through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and to establish the concepts of death. In other words, this study aims at helping young children to prepare a happy life by letting them know what the death is like from the stage of young childhood through picture books friendly to them, getting rid of the anxiety and fear of death, and conceptualizing appropriate thoughts on death. This study was to present actual support for the education field to reasonably and systemically understand the positive values of death that young children experience through picture books. The purpose of this study also lied in systemizing the picture book list related to death to utilize picture books for young children's education of death.

According to the study purposes above, this study assumed research questions below:

1. How are the object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described?
2. How are the concept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established?
3. How are the meaning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represented?

This study employed the content analysis as a research method.

First, from October to December 2011, we collected picture books that can be included in picture books eligible for the analysis. In non-probability purposive sampling, we primarily chose 64 picture books that deal with death in reference to recent previous studies related to death appearing in picture books, and to related overseas and domestic books, the Korea library association, and internet bookstores. And then, from October 2011 to February 2012, we categorized them into the object of death, the concepts of death, and the meaning of death according to in picture books. Of those we primarily collected, we secondarily chose 32 picture books that were judged appropriate for attributes of good death concepts by Lee Gyeong-ju et al. (2006). In the end, the analysis of each book's content was performed from October 2011 to April 2012. According to the criterion table in appendix 2, we classified 24 finally chosen picture books, and those classified books were again sub-classified as words on death, upper concept on words and lower concept on words. We named the contents of classification and made a categorized list. Also, through reading, analyzing and inferring the derived various words, phrases, and clauses, we created explainable new concepts and

categories of them and generated meanings by representing them as subjects. As for the analysis of the contents of picture books, by repeating modify-remodify similar categories, we yielded the objects of death, the concepts of death, and the meanings of death.

Following are the results of this study:

Firstly, it was found that the object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were grand-parents, parents, brothers and sisters, friends, pet-animals, sons and daughters, friend's parents, himself/herself, others, etc.

Secondly, it was found that the concept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were 'I am going to get separated someday,' 'I can't see death once again,' 'I can't die even though I want to,' 'Death has a cause,' 'Living creatures are to get aged,' 'When you die, you go to another world.'

Thirdly, it was found that the meaning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were 'ceaseless continuance of time of anxiety and fear: anxiety,' 'isolated time of nothing you can do: insensibility,' 'time of memories that pop up repeatedly: nostalgia,' 'choice of time with nothing to do: compromise,' 'sad but beautiful time: acknowledgment,' 'time of another life: surmount.'

In conclusion, it is expected that exploration in depth of the objects of death, the concepts of death, and the meanings of death appearing in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by way of using the content analysis research method helps to bring the positive values of death that young children experience in picture books to young children's education field with reasonable and systemic understanding of them.

At the same time, with a trial to practice the deat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this study is to be presented as empirical basic data. It suggests that what death should mean to young children and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ath education in order to understand what death is.

Key words: young children's picture books , death

Ⅰ. 서 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어느 누구도 영원히 살지는 못한다. 우리는 일상 속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들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할지라도, 죽음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서성거리고 있다.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한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Morgan 과 Morgan(1977)은 죽음의 의미를 역사적, 심리학적, 철학적, 종교적 측면으로 나누어 정의함으로써, 인간의 삶이 세계관이나 문화가치, 역사흐름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처럼 죽음의 의미도 변화한다고 보았다. Nagy (1948)와 Smilansky(1987)는 죽음을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는 보편적인 개념, 필연성의 개념, 한번 죽게 되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비가역성의 개념, 우리는 죽으면 모든 기능이 멈추게 된다는 비기능성 개념, 죽음은 늙어가는 것을 나타내는 노화성과 죽은 후의 세상이 있다는 사후의 세상으로도 정의하였다. 이와 같이 죽음에 대한 학자들의 다양한 개념 정의를 통하여 우리는 '죽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 한마디로 대답할 수는 없지만 죽음이란 위와 같이 주요개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유아에게 있어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호기심이 생긴다. 유아와 죽음에 관한 연구들을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 첫째, 유아의 죽음개념 발달과 관련된 연구들(권성자, 1984; 박아청·정경숙, 2001; 양진희, 2006; 이준숙, 1992; 정경숙, 2001; 정은미, 1999)로서, 이는 유아가 죽음개념을 이해하고 죽음의 개념을 발달시켜 나가는 데는 연령, 발달의 정도에 따라 개인차가 있으며 죽음에 대한 사회문화적인 이해, 양상에 따라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력이 달라진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둘째, 죽음개념교육과 관련된 연구들(김상희, 1986; 이정희, 1988; 정경숙, 1998)로서, 이것은 죽음개념 형성, 죽음개념 형성을 위한 중재효과, 유아의 발달에 따른 죽음개념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이다.

유아들이 죽음에 관한 질문을 할 때 부모들은 죽음이라는 개념이 유아가 이해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주제라고 생각하거나 그들이 느낄 죽음에 대한 공포, 고통, 두려움 등으로부터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에 대답을 회피하거나 비현실적인 대답을 해주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유아들은 죽음에 대해 부정확하고 잘못된 인식을 갖게 되어 어른에 대한 불신과 함께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나 불안을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서현아, 1998).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유아들은 죽음에 대하여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한다. 즉, 죽음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죽음개념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아들일수록 자신의 주변에서 발생하는 죽음에 대하여 보다 잘 적응할 수 있으며,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는 연구들은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양진희, 2006; 정경숙, 1996).

죽음은 유아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 속에 있다. 직접적인 경험뿐 아니라 미디어를 통해 유명인들의 죽음을 접하고 그로인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공포, 또는 막연한 동경이 생길 수도 있다(Nelson, 1979). 이에, 우리는 죽음에 대한 바른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느낄 수 있다. 죽음에 대해서 아는 것이 곧 삶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 관련 연구를 한 대부분의 학자들은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가능한 한 빨리 이해시키고 교육해야 할 것을 권하고 있다(Gorden, 1979). 성인이 유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죽음에 대하여 이해시키느냐 하는 것은 유아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아의 죽음교육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것이다. 다른 나라의 경우 유아에게 '죽음교육'을 실시해야하는 이유를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죽음교육'을 교과과정에 편성하고 운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교육을 실시하기위한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저서들을 개발하는데 힘쓰고 있다(양진희, 2006).

유아들에게 죽음을 이야기하고 이해시킨다는 것은 당혹스럽고 불편한 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직접 체험이 가능한 다른 여러 경험과는 달리 죽음은 간접 체험으로만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러한 간접 경험의 좋은 매개체가 바로 문학작품이다(장혜순, 2007). 죽음은 우리 삶의 한 부분이다. 그러나 나이 어린 유아는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죽음에 대해 지나치게 부정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갖거나 또는 그와는 정반대로 환상을 갖게 되는 경향이 높다(Nelson, 1979). 여기에서 또 한 번 우리는 유아에게 죽음교육을 실시해야할 필요성을 느낀다. 유아들에게 자신을 이해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매체와 공간, 사람 등 다양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유아교육 기관이나 가정에서 손쉽게 유아들에게 그러한 경험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대표적인 방법은 '그림책'이라는 매체를 통한 방법일 것이다. 그림책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죽음에 대한 유아의 생각을 이끌어내고, 죽음에 대해 자연스럽게 접근하기 위한 좋은 도구이다(원계선·최일선, 2004; 이영자·이종숙·신은수, 2005; 장영숙, 2005).

대부분의 행동 특징과 인격이 형성되는 어린 시절에 접하는 그림책은 감수성이 풍부해지며 유아의 장래에 밝고 긍정적인 삶의 태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김윤옥, 2000). 그림책은 유아들의 삶을 반영하고 사회를 반영하는 하나의 문화적 매체이다. 성인들은 대체로 유아들이 상처받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가정, 유치원에서 행복한 감정에만 집중하도록 환경을 구성하거나 학습의 성취를 위해 환경을 준비한다. 그러나 강은진·현은자(1998)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세상의 슬픔이나 실망, 상실 등의 경험을 막

는 것은 결국 유아들의 배우는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강조한다. 즉, 어려움이나 고통, 슬픔에 대한 감정을 다루고 그것을 배우는 것은 그것을 숨기는 것보다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준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유아의 관점에서 유아를 이해하고 유아의 생각과 이해를 이끌어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유아의 생활세계를 잘 반영한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다(양진희, 2006).

그림책은 유아들의 경험세계를 다루고 유아들의 삶의 모습을 담고 있기 때문에(이경우·장영희·이차숙·노영희·현은자, 1997), 유아들의 공감과 흥미를 쉽게 유발시키며(강은진·현은자, 1998), 유아들에게 즐거움과 편안함을 느끼게 한다(이경우 외, 1997). 따라서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의 일상적 경험을 그림책과 연관시켜 느끼고 생각할 뿐 아니라, 자신의 내면세계를 자연스럽게 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그림책 내용 및 유아의 경험과 관련된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문학적 접근을 들 수 있다. 문학적 접근은 유아교육의 매체, 방법, 효과 면에서 그 가치가 우수하다고 말하고 있다(이경우 외, 1997). 문학적 접근에서 문학은 풍부한 매체이며, 방법으로서 문학의 사용은 총체적 언어 이론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교육에 문학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효과가 크다는 이론이다. 이를 통해서 볼 때, 문학은 유아가 접하는 그림책이 담고 있는 의미의 해독능력을 발달시킨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문학이 가지는 교육적 작용은 문학적 접근의 교육활동에 대한 효과성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죽음 교육을 위한 접근으로서의 근거가 된다. 문학적 접근을 교육활동에 적응시킨 사례로는 반편견 그림책을 활용한 반편견 교육(서현, 2003; 이경우, 1999; 조은진·정은영, 2002; 황은주, 2000)을 들 수 있다. 또한 문학적 접근을 시도하는 교수 방법에서는 유아에게 보다 더 의미 있고, 자연스러운 맥락을 중시하는 전반적인 흐름이 반영되어, 영역을 통합하여 그 효율성을 높이는 통합적인 접근법이 강조되고 있다(이은화·이상금·이정환·이

경우·이기숙, 1995). 이에 따른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교수방법에 그림책을 활용하는 연구(박미령, 2004; 서현아·김소연, 2001; 손경진, 2011; 이우영, 2006; 천희영·이귀니·신세니, 2009)들과 그림책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는 연구(김현경, 2006; 노영숙, 2009; 박니시, 2005; 이미옥, 2009; 한은주, 2009)들이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의 교육프로그램 효과를 검증함으로써 그림책을 활용한 문학적 접근의 교육적 효과를 시사하고 있다. 즉,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교육은 유아들이 경험하게 될 죽음 상황에 대해 잘 대처하게 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죽음에 대한 올바를 이해와 인식을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하여 막연하게 지니게 될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를 미칠 것이다. 따라서 유아들의 죽음 개념에 대한 올바른 인식 및 긍정적인 태도의 증진과 유아의 죽음에 대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접근방법으로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교육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유아교육현장에서는 아직 그림책을 활용한 구체적인 죽음교육이 구축되어 있지 않고, 그림책을 활용한 유아의 죽음교육에 대한 보조적 교수자료도 부족한 실정이다(조메리명희, 2009; 한은주, 2009).

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는 대부분 유아의 죽음개념의 발달여부에 관한 연구이며 실질적으로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죽음교육의 프로그램이나 효과를 다루고 있는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그러나 최근 한국 출판시장의 새로운 방향은 지금까지 금기시 되었던 죽음관련 책의 출판이 많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조메리명희, 2009). 죽음교육에 대한 접근은 시작단계에 있는데,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교육을 실시한 양진희(2007)의 연구는 죽음을 다루고 있는 그림책을 듣기만하여도 유아의 죽음개념의 형성과 죽음 불안을 감소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이찬숙·신혜경·주현경(2010), 이찬숙·조메리명희(2009), 조메리명희(2009)의 연구에서도 그림책의 활용이 죽음개념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교육연구가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에 연구자는 유아가 그림책을 통해 죽음의 대상을 이해하고 죽음에 대한 개념을 형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죽음과 관련된 그림책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는 유아들과 친근한 그림책을 통해 유아기부터 죽음에 대해 알게 해주고,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없애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유아들이 그림책으로 경험하는 죽음의 긍정적인 가치를 유아 교육현장에서 바람직하고 체계적으로 이해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유아기의 죽음교육에 그림책이 활용될 수 있도록 죽음과 관련된 그림책 목록을 체계화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는 유아를 대상으로 죽음 교육을 실천하고자 할 때 경험적인 기초자료로써 의의를 가지며 이를 통해 그림책의 또 다른 교육적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B. 연구문제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관하여 내용 분석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고,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 죽음의 개념,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은 어떻게 표현되고 있는가?
2.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가?
3.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Ⅱ. 이론적 배경

A. 유아를 위한 그림책의 이해

본 장에서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의 정의, 그림책의 가치, 그림책의 유형, 그림책의 선행연구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1. 그림책의 정의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독특한 개념을 통해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완성된다. 많은 학자들은 이제 그림책이 아동문학이나 회화와 같은 영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발전하고 있는 고유한 예술형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현은자·김세희, 2010). Kiefer(1995)는 그림책을 독특한 예술작품이라고 주장하고 글과 그림의 결합은 부분의 합보다 많은 것을 독자들에게 전달하다고 언급한다. 마쓰이 다다시(2011)는 그림책은 작가와 화가의 편집자가 공동으로 만들어 낸 '이야기가 담겨진 그림이 있는 책'이라고 하였다. 이는 글과 그림이 어느 부분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본문의 완성을 위해 글과 그림이 서로 각각 다른 매체로서 표현되어 독특한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낸다는 것을 뜻한다. 즉 그림책안의 그림이 글과 동등하게 이야기를 표현하고, 때로는 그림만으로 이야기 세계를 만들어 내는 시각적 언어를 충분히 활용한 의사소통 매체라고 할 수 있다(서정숙·남규, 2005).

Shuievitz(1997)는 그림책의 글과 그림의 관계에 대하여 '그림책에서 글은 그림을 반복하지 않으며, 그림도 글을 반복하지 않는다. 글과 그림은 대위적 관계로 서로를 보완하고 완성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림책은 유아가 접하

는 최초의 책으로 오늘날 많은 유아들에게 보편화된 교육매체이다. 그림책은 유아문학에서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다. 이는 그림책이 유아에게 다각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림책이 유아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는 이유는 그림책이 그림 하나만으로도 독자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그림과 글의 조합이 또 다른 다양한 의미들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기 때문이다(김현희·박상희, 2009).

진정한 의미에서 그림책이라고 부르는 책에서는 글이 그림 없이 그 자체로만 존재할 수 없다. 그림이 없다면 이야기의 의미는 불분명해진다. 그림에는 글에 담겨 있지 않은 추가 정보가 있을 뿐 아니라 글과 그림의 상호작용으로 그림책의 전체의미가 생성되기 때문이다(현은자·강은진·변윤희·심향본, 2004). 유애로(1982)는 그림책이란 서적의 형태를 갖추고 그림 또는 글이 융합해서 생기는 예술적 소산이며 이야기, 동화, 어린이의 주변세계의 사물이나 현상, 동식물이나 기계 등의 관찰을 주로 하는 내용을 가지며 그림책의 주제를 통일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였다.

그림책은 글과 그림의 독특한 결합을 통해 하나의 예술적인 작품으로 완성된다. 많은 학자들은 그림책이 아동문학이나 회화와 같은 영역과는 별개로 독립하여 발전하고 있는 고유한 예술형식이라는데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현은자·김세희, 2010). 또한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활발하게 상호작용하여 의미를 창출한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김현경, 2006). 따라서 그림책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는 글만 읽어서도 안 되고 그림을 보기만 해서도 안 되며 글과 그림을 함께 읽어야 한다.

위의 이론들을 종합하여 볼 때,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서로 보완하고 완성하여 정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책이며, 그림책은 글과 그림이 어우러져 유아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매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2. 그림책의 가치

그림책의 가치는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것이다. 마쓰이 다다시(2011)는 그림책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스스로 영상을 그려내지 못하는 유아에게 이야기의 세계를 그려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며 이야기를 그림의 다양하고 풍부한 영상으로 보여줌으로써 아이들에게 상상하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림책은 유아에게 즐거움, 감동하는 마음을 제공한다. 소리 내어 읽어주고 이야기 해주는 그림책의 체험은 다른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듣는 힘을 자연스럽게 길러주며 유아들은 그림책에서 보고 느끼는 생각과 감정들이 후에 유아들의 인지적·정서적 성장발달을 돕는다고 하였다(김현희·박상희, 2009).

현은자·김세희(2010)는 그림책의 가치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첫째, 우수한 그림책은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그리하여 유아기에 그림책을 통해 맛본 즐거움은 평생 동안 그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취향과 태도를 형성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둘째, 어린이는 그림책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과 감정을 재확인하며, 현실 생활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 셋째, 그림책을 통한 간접 경험 제공은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도록 돕는다. 넷째, 환상적인 이야기는 어린이의 상상력을 풍부하게 한다. 다섯째, 그림책과의 접촉을 통해 어린이는 비지시적 상황에서 어휘 확장, 구어, 문어의 자연스러운 발달을 이룰 수 있다. 여섯째, 어린이는 훌륭한 미술 작품으로서의 그림을 감상하며 심미적인 감상력을 기를 수 있다. 이처럼 그림책은 어린이의 독서에 대한 태도와 취향을 형성시켜 주고, 심미적인 감상력을 키워 줌으로써 그 가치가 크다고 하겠다.

그림책은 유아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유아는 책 속에서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봄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다른 사람에

대한 지식을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이해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전방실, 2001).

이와 같은 그림책이 유아에게 미치는 긍정적인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그림책은 유아의 정서생활을 풍요롭게 한다. 둘째, 그림책은 충분한 시각요소의 활용으로 어린이의 마음을 사로잡아 자연스럽게 심미감을 발달시킨다. Kiefer(1995)는 책에 대한 유아의 이런 반응들을 분석하여 책이 지닌 시각적 요소에 대한 유아의 반응이 연령에 따라 다르다는 사실을 밝혀냈으며, 현은자 외(2004)는 그것이 유아의 인지적 및 심미적 요인들에 관한 사고수준에 따른 차이라고 설명했다. 셋째,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의 주변세계와 이웃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다. 주인공을 통해 지식을 구하고, 간접 경험을 하게 되며,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 감정을 느끼게 된다(현은자·김세희, 2010). Russell(1991)은 '그림책은 인간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을 넓고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고 설명했다. 그림책은 유아들의 발달과정에서 유아들이 직접경험해 보지 못한,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일상적인 일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하게 해 주는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이것이 그림책의 가장 큰 효과이자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이대균·백경순·송정원·이현정, 2006). 따라서 그림책을 통해 유아는 자신감과 자기 통제력을 갖게 되어 지적인 능력과 정서적 안정감이 나타난다. 넷째, 그림책을 통하여 유아는 언어발달을 하게 된다(강인언·김영숙, 1998). 그림책을 읽는 목적은 책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이해하고 그 이해의 과정을 통하여 재미와 감동을 느끼는 것이다. 조희숙(1980)은 이런 과정을 통해 유아는 자연스럽게 낱말과 형태, 소리를 익히고 글자도 쓸 줄 알게 되며, 단어의 뜻도 알게 되고 성인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매체라고 하였다.

이처럼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현실의 수수께끼를 해결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게 하는 방법을 제시하며 제한된 영역에서 넓고 깊은 삶이 인식으로 이끌어 준다. 또한 인간의 여러 가지 생활양식을 관찰할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적 행동기준이 드러난 역할이 묘사되어 사회적 가치와 태도를 습득하도록 돕는다(노영숙, 2009).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에게 이야기를 제시할 때 글자나 말과 같은 한 가지의 방법으로 제시하는 것보다 그림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유아가 이야기 내용을 기억하는데 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책은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발달, 정서발달에 이르기까지 유아들의 전인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특히 그림책에 내재되어 있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가치관에 관한 간접 경험의 효과는 이후에 유아의 실제 생활에서의 사회화 과정과 가치관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이혜진, 2006)

3. 그림책의 유형

그림책의 유형은 여러 가지 특성에 의해 나눠 볼 수 있다. 주제와 소재별로 분류할 수도 있고, 연령별, 장르별로도 구별할 수 있다(김현희·박상희, 2009). 여기에서는 주제와 소재에 의한 분류를 소개하고자 한다(김현희, 2003; 서정숙·남규, 2005).

먼저, 서정숙·남규(2005)는 그림책의 주제에 문제해결 및 심리적 발달, 가족과의 관계, 가족 외 생명과의 관계, 자연의 모습이나 자연과의 관계, 다문화, 반편견, 여러 가지 문제 상황, 기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그림책의 주제와 소재로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이야기. 둘째, 어린이에게 익숙한 일상적 경험 이야기. 셋째, 자연에 대한 유아들의 느낌과 호기심을 다루는 이야기. 넷째, 유머와 환상적인 요소가 함께 어우러진 내용도 중요한 그림책의 주제와 소재가 된다. 다섯째, 농촌의 도시화에 따른 사회문제와 환경문제를 다룬 이야기. 마지막으로 성경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룬 종교적 이야기도 그 주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김현희·박상희(2009)는 주제는 이야기 속에 들어 있는 핵심적 생각이고 이

주제가 작품을 힘 있고 긴장감 넘치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림책의 주제는 단순하지만 보편타당한 진리를 담고 있어야 하고, 신뢰감을 형성하고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주제가 바람직하다고 하였다. 이야기의 내용과 잘 조화된 그림과 간결한 언어는 유아에게 큰 즐거움을 줄 것이다.

또 다른 분류로, 김현희(2003)는 그림책을 주제별로 나, 가족, 친구, 생명과 죽음, 나와 다른 사람의 이해, 사회문제의 이해로 나누었다. 첫째, 나를 주제로 개인의 정서나 자아개념, 자아존중감, 자신감, 독립심 등을 다룬 내용을 말한다. 둘째, 가족을 소재로 한 그림책에서는 가족 간의 사랑이나 이혼, 형제간의 갈등, 조부모와의 관계 등을 그리고 있다. 셋째, 친구간의 관계를 다룬 책. 넷째, 나와 다른 사람의 이해를 주제로 나눈 그림책에서는 장애(특별한 정신적·신체적 요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나누었다. 다섯째, 생명과 죽음을 주제로 나눈 것은 비교적 쉽게 생명과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섯째, 사회문제의 이해를 주제로 나눈 그림책은 경제, 전쟁 등의 사회문제를 표현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즉, 주제별로 나눈 그림책은 유아들이 주변에 대한 이해, 관심을 간접적으로 배우는데 좋은 매체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4. 그림책의 선행연구

유아에게 적합한 교수매체는 유아의 학습동기를 부여하고 성장을 촉진한다. 따라서 유아의 발달과 흥미, 요구에 따른 교수매체를 선택하여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유아의 발달에 적합한 좋은 매체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발달적 특성에 대한 이론적인 이해와 통찰력을 기르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심성경·김경의·변길희·김나림·최대훈·박주희, 2007). Koralak, Colker와 Dodge(2005)는 영아기, 걸음마기, 학령전기의 3단계로 나누어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수매체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유아기 그림책에 관한 연구이므로 학령전기에 해당한 교수매체를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서 학령전기란 3~5세의 유아를 말하고 있다. 3~5세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 선정 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은 새롭게 나타나는 능력을 발달시키며 유아의 능력과 흥미에 맞출 수 있는 적합한 교수매체를 제시하는 것이다(Bronson, 1998). 학령기 유아를 위한 교수매체의 특성은 발달적· 환경적 차이로 인한 유아의 다양한 능력과 흥미를 고려하여야 하며,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지원해야하고, 예술적 표현 능력을 증가시킬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고, 세상에 대한 이해와 효과적 대처를 위한 내적 동기 유발을 장려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유아의 인지능력과 표현능력을 촉진시키며, 주제에 대한 학습능력과 흥미를 증가시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심성경 외, 2007). 그리고 3~5세를 위한 교수매체들 중 언어영역에서만 살펴보면 감정과 태도, 가족과 친구, 일상생활 경험, 자연과 과학, 흥미와 오락에 관한 그림책과 책의 겉장이 보이도록 전시하는 책꽂이, 책과 카세트 테이프 세트와 카세트, 연필과 같은 필기구 등을 유아에게 적합한 매체로 제시하고 있었다.

이런 연구들로 보아 유아를 위한 그림책이 유아들의 죽음에 대한 교수매체로 선택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Koralak, Colker,와 Dodge, 2005). 이런 그림책의 긍정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김민정, 2007; 박미령, 2004; 서현아· 김소연, 2001; 윤갑정·지은주·이은혜, 2009; 이우영, 2006; 천희영·이귀숙·신세니, 2009)은 그림책이 유아들의 생활에서 교수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그림책의 내용 자체가 학습의 내용이기도 하기 때문에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최근 들어 소수의 연구자들(신세니·조희숙, 2008; 신혜선, 2005)은 그림책이 교육현장에서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교사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그림책의 주제 및 소재를 연구대상으로 내용분석

을 진행하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내용분석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그림책의 성인독자에 관한 연구(김수미, 2010), 그림책의 곰의 이미지에 관한 연구(김현경, 2006), 그림책의 학교의 이미지(노영숙, 2009), 그림책에서의 자아개념(박니시, 2005), 그림책에서의 긍정적 자아개념(박미령, 2004), 그림책에서 주인공에 대한 아동의 반응(박현경, 2006), 그림책에서의 노인의 이미지(신세니·조희숙, 2009), 그림책에서의 직업세계(이미옥, 2009), 그림책에서 성인등장인물(장혜미, 2007),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한은주, 2009)들이 있다.

이들 연구들의 대부분은 그림책의 내용 그 자체가 중요한 교수매체로 활용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으며 그림책이 유아의 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내용분석처럼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에 대한 대상을 통해 다양한 죽음을 알 수 있고, 죽음의 개념을 통해 유아가 죽음을 이해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며, 죽음의 의미를 도출하여 유아가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찾고 분석한 연구물은 미비한 실정이다.

B. 유아를 위한 죽음의 이해

본 장에서는 죽음의 의미, 유아의 죽음에 대한 주요개념, 유아기 죽음에 대한 개념발달, 유아기 죽음교육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죽음의 의미

‘죽음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한 마디로 대답하기는 어렵다. Morgan 과 Morgan(1977)은 죽음의 의미는 우리의 세계관과 문화적 가치가 역사의 흐름

에 영향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변화 한다고 설명한다. 죽음의 의미를 역사적, 심리학적, 철학적, 종교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죽음의 역사적 의미

역사적으로 보면 죽음에 큰 관심을 가졌던 고대 이집트와 티벳 문화는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의식이 계속 활동한다는 확고한 신념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이기원, 1993). 또한 중세시대에는 죽음의 실제보다는 종교적 가치가 강조되었다(정은미, 1999). 즉, 죽음을 사회적 사실로 간주하면서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니라 한 과정이며 순간적 행위가 아니라 저승으로 통과하는 시간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죽음의 역사적 의미는 죽은 후의 삶이 있다고 믿고 죽음은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에 대한 내세사상을 엿볼 수 있다.

b. 죽음의 심리학적 의미

심리학자들은 죽음이 인간에게 어떠한 현상으로 드러나는지 어떤 본능으로 나타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조메리명희, 2009). 프로이드는 인간의 본능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하였다. 하나는 성을 통한 개인의 자기보존과 종족 보존을 위한 '삶의 본능'이고 하나는 무생물로 회귀하려는 인간의 '죽음의 본능'이 그것이다. 그는 삶의 본능을 리비도(libido)라 하였고 죽음의 본능을 타나도스(tanados)라 하였다. 죽음의 본능은 파괴적 본능으로서 삶의 본능과 같이 눈에 띄게 작용하지 않아 알려진 것이 적지만 그 기능은 분명하다는 것이다. 즉 모든 생명체는 죽음을 향하여 있고 인간은 무의식적으로 죽으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배영기, 2006, 재인용).

에릭슨(Erikson)은 인간의 발달단계를 8단계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마지막 단계를 자아통합의 단계로 보는데, 이전에 지나온 일곱 단계에서 얻어진 경험의 최종적인 정리가 바탕이 되어 자아통합이 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죽음의 공포에 직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는 인간이 전체적인 발달 단계를 성실하게 살고 가족의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쌓아온 사람에게는 죽음의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전체성과 완전성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이관용·이장화, 1972, 재인용).

이처럼 죽음의 심리학적 의미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본성과 심리구조를 통해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보여줌과 동시에 죽음의 존재를 자각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에릭슨의 경우 삶의 과정 속에서 생명체의 성장과 노화성을 설명하였으며 결국, 자아통합이 이루어지면 죽음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 죽음교육이 단지 죽음직전뿐만이 아닌 삶의 각 단계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방수동, 2006).

c. 죽음의 철학적 의미

고대 플라톤의 이원론적 인간관은 죽음을 통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에 살 수 있다는 영혼윤회설을 강조함으로써 삶의 형식을 더 약하게 만들었다. 반면 현대 철학자 하이데거는 죽음을 내세와 연결 짓지 않고 현존재의 종말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하였다(Morgan & Morgan, 1977). 철학에서 바라본 죽음은 현재의 삶에 던지는 '죽음의 의미' 문제와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다. 고대의 죽음은 철학자들의 중요한 사색의 주제가 되어 왔으나 현대인은 죽음의 사실을 나와는 전혀 무관한 객관적 사실인 것처럼 인식하고 있다. 많은 철학자들도 역시 오랜 세월을 거쳐 죽음의 문제를 다루어 왔지만 그 어느 누구도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취급하지는 못했다.

고대의 헬라인들은 인간을 규정하여 단적으로 죽는 존재 혹은 '죽어야하는

존재'로 정의했다. 그들은 인간이란 죽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며 이것이 인간을 가장 적절하게 특징짓고 있다고 생각하였다. 특히 소크라테스는 철학을 가리켜서 죽는 연습이라고 했고 죽음은 철학에 진정한 영감을 주는 하늘의 선물로 생각했다(배영기, 2006).

19세기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실존주의 철학은 죽음은 인생의 거울이다. 죽음을 철학한다는 것은 곧 삶을 사랑한다는 의미이며 따라서 죽음이 배제된 삶의 철학은 반쪽짜리 가치와 의미일 뿐이라고 단언한다. 실존적 죽음관을 대표하는 하이데거는 그의 저서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은 죽기위해 태어나 피조물, 또는 인간은 죽음과 직결된 존재'라고 하며 '현존재로서의 인간을 죽음에로의 존재'라고 규정하고 있다(정동호, 2004, 재인용).

이처럼 죽음의 철학적 의미는 살아있는 존재의 죽음에 대한 필연성을 인식하고, 그 인식의 바탕에서 삶에 대한 고찰을 진지하게 해볼 수 있는 과제를 우리에게 던져준다.

d. 죽음의 종교적 의미

죽음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 종교적 의미를 알아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죽음과 가장 연관되어 있는 것이 바로 종교이며 종교는 죽음의 불안을 극복하거나 죽음을 모태로 하여 시작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종교는 죽음과 가장 밀접하게 사람들과 연관되어 있으면서 동시에 그 시대 사람들의 의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조메리명희, 2009).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기 위해 한국인의 의식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무속, 불교, 기독교의 죽음이해를 살펴보고자 한다.

(1) 무속에서의 죽음

전통적으로 한국인은 굳이 죽음을 외면하려 든다. 오래전부터 내려온 속담인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죽은 다음에 석잔 술보다 살아서 한 잔 술이 더 좋다'는 등의 이야기는 무속과 관련되어 전통적으로 내려온 생각으로 죽음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잘 표현해 주고 있다. 무속에서는 죽음보다는 삶에 강한 애착을 느낀다(김승혜, 1990). 죽음을 재앙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반면에 '대문 밖이 저승이다', '죽음에는 노소가 없다'는 이야기 속에서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필연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음도 볼 수 있다.

(2) 유교에서의 죽음

유교의 생사관에서 중요한 것은 생사가 인간의 모든 것의 주체라는 것과, 존재와 생명의 근원인 천(天)에 의해서 생사가 이루어지고 지배되므로 순천명(順天命)하는 태도이다(김대동, 2005). 그러므로 유교에서는 죽음을 하나의 필연적인 사실로 인정한다. 그리고 생명이 있는 곳에 죽음에 있고 시초가 있으면 종말이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의 이치로서 죽음도 이 자연의 현상의 일부일 뿐이고 인간은 우주 자연의 원리에 순응하는 것만이 올바른 도리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처럼 유교에서의 죽음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요, 자연의 법칙이며,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담담히 받아들이고 그것 때문에 지나친 고뇌와 고민 속에 빠져들지 말아야 된다고 보고 있다.

(3) 불교에서의 죽음

죽음에 대한 문제는 불교에서 인간의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함께 윤회의 교리에서 그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붓다는 어느 누구보다도 중생에게 죽음의 불가피함을 철저히 인식시키고자 노력하였다(김승혜, 1990). 먼저 인간의 생사와 관련된 불교의 입장은 인간의 일생은 고(苦)이다. 산다는 것도, 앓는 것도, 죽는 것도 다 고(苦)이다. 그리고 인생은 생(生)으로부터 사(死)로 향하는 하나의 여정과 같은 것이며, 결국 생이라는 원인에 의해서 사라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처럼 죽음의 종교적 의미에서는 인간에게 죽음이란 마땅히 받아 들여야 하는 것과 삶 자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는 문제임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유아의 죽음에 대한 주요개념

Melear(1973)는 유아들은 죽음의 의미를 상대적으로 이해하지 못하며, 유아는 죽음은 일시적인 상태로서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죽음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나 이는 단지 생물학적 의미이며, 죽음이 삶으로 다시 회복될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고 믿는다는 것이다. 또한, 유아는 죽음은 모든 기능이 정지되는 종말로서 신체기능의 단절과 비가역성의 의미를 죽음이라 여긴다고 분류하였다(정은미, 1999, 재인용). 죽음의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지, 아니면 수많은 주요개념을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파악해야 할지를 정확히 분간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개념들의 숫자나 그 개념들을 정의하는 방식에 따라, 또 연구에 사용한 개념의 종류에 따라 차이를 보여왔다. 그러나 대체로 죽음의 개념이 단일한 일차적인 개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주요개념으로 구성된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Speece, 1987).

Smilansky(1987)와 죽음이해 교육 관련 연구자(권성자, 1984; 김남주, 1984; 이준숙, 1992; 이정희, 1988; 정경숙, 1985)에 의하면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음의 주요개념에 대한 이해가 전제 되어야한다고 주장한다.

이처럼 다양한 주요개념들 중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주요개념을 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인과성, 노화성, 사후개념으로 나누었다. 죽음의 개념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은 '모든 살아있는 것은 죽는다'는 것이다. 이는 즉각적 사건으로서의 죽음, 개인적 사건으로서의 죽음, 그리고 필연성으로서의 죽음을 포함한다. 그러나 죽음에 대한 보편성 개념을 획득하기 전의 유아는 죽음을 종국적인 과정으로 보지 않고 죽었다는 것을 '덜 살아있는 상태'로 인지한다(Nagy, 1948). 보편성은 모든 생물이 마침내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을 의미한다(정경숙, 2000). 즉 어떠한 존재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편성에 대한 이해는 죽음을 일반 보편적인 것으로 이해하며 어떠한 생물체도 피해갈 수 없는 것임을 이해하는 것이다. 보편성의 인식은 죽음의 인과성에 대한 이해를 도와준다. 즉 죽음은 모든 생물체가 거쳐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유아들은 생물체가 죽게 되는 이유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 또 다른 용어로는 필연성(Inevitavility), 포함성(Inclusiveness), 비예측성(Unpredictability)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둘째, 죽음의 비가역적 개념은 물질적 육체는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으로 마지막으로서의 죽음,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죽음, 영원으로서의 죽음이 기초적 개념으로서 사용되어지곤 한다(Smilansky, 1987). 비가역성은 죽음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는 것으로서, 만일 생물이 죽으면, 우리들이 아무리 소망하고 기대하여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다. 일단 신체가 죽었을 경우, 마술이나, 약, 음식, 물 기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Smilansky,

1987). 이러한 이해는 죽은 사람이나 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유아들이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비가역성이 지니는 여러 측면을 설명하는 다른 용어들로는 비소급성(Irrevocability), 영속성(Permanance), 종국성(Finality), 죽음의 불변성(Inalterability) 등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셋째, 죽음의 비기능성 개념은 모든 삶의 기능은 죽음으로 정지된다는 것이다(정경숙, 2000). 이는 기능장애와 정지를 의미한다. 죽고 나면 신체의 모든 기능, 즉, 밥 먹고, 숨 쉬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다. 연구자들에 따라서 신체기능의 중지, 역기능, 무감각, 부동성 및 종국성이라고 하기도 한다. 종국성은 비가역성 다음으로 많이 쓰이고 있으며, 특히 비가역성과 비기능성을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Gorman, 1983). 다른 용어로는 종말성이라고도 한다. 종말성의 개념은 죽음을 살아있는 상태의 반대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종말성의 이해를 전제한 죽음에 대한 이해는 살아있는 상태(예: 움직임, 느낌, 의식 등)의 정반대의 요소들을 이해하는 것이다. 종말성의 이해는 유아들로 하여금 생물체가 죽으면, 어떠한 것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며 아무런 느낌(예: 추움, 배고픔, 아픔 등)이 없다는 것을 인식하도록 도와준다.

넷째, 죽음의 인과성개념은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아는가에 대한 사고를 말한다(Kane, 1979). 인과성을 가진 아동들은 죽음의 원인을 내부적인 요인보다 외부적인 요인에서 찾았다. 즉, 인과성을 이해하기 전의 아동들은 죽음의 원인을 외부적인 것, 가령 총이나 교통사고 같은 것에서 찾게 되는 반면, 인과성을 획득한 아동들은 고령이나 질병, 기타 생물학적인 요인들과 같은 내부적인 것에서 죽음의 원인을 찾게 된다. 인과성은 죽음과 관련한 신체 생물학적 요소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해는 유아가 죽음에 대한 직접·간접 경험

에 처할 때, 그런 상황에서 심리적, 정서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 준다.

다섯째, 죽음의 노화성 개념은 인생의 생물학적 순서(sequence)에 탄생, 성장, 늙음, 그리고 죽음이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다. Smilansky(1987)에 의하면 노화성에 대한 이해는 보편성과 인과성과도 연결되는 항목이다. 때로, 유아들은 사람이 반드시 죽는다는 것과 죽음에는 이유가 있음을 이해하지만(예: 나이, 병), 모든 사람이 계속적으로 노화되고 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죽음에 대하여 성숙한 개념을 가지기 위해서는 유아가 반드시 노화성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한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은 유아로 하여금 기본 개념에 근거한 생물의 신체적 죽음에 대한 개념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Smilansky(1987)에 의하면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인지적으로 이해하고 있을 때 심리적, 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유아들의 죽음개념에 대한 이해를 위해 초자연적인 대상들이 그림책에서는 등장한다. 이러한 초자연적인 대상들(귀신, 도깨비, 마녀 등)은 죽음에 대한 이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송명자, 1998). 또한, 사후 세계의 묘사는 천사 혹은 죽은 사람의 모습 등으로 묘사되기도 하며, 사후 세계와의 소통구조로는 영혼, 직접적인 실체, 꿈, 목소리, 새, 사신, 죽음 자체 등 다양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박현경·윤현민, 2008).

3. 유아기 죽음에 대한 개념발달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연령과 인지적 발달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한다(김남주, 1984; 정경숙, 1985). 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죽음에 대한 교육적인 측면을 포함한 다양한 연구들이 1948년 Nagy의 연구를 시초로 하여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진행된 죽음 개념에 관한 연구는 연령증가에 따른 죽음개념의 발달 수준을 밝히고 있다. 죽음의 주요개념인 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인과성 측면의 연구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다.

권성자(1984)는 아동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성별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였으며, 정경숙(1985)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죽음에 대한 개념 이해 수준은 정교화 되고 발달하지만 각 개념별 연령증가에 따른 획득 비율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김남주(1984)는 보편성과 비가역성의 개념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한다고 하였고, 김상희(1986)는 죽음의 원인에 대한 개념과 보편성 개념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발달하나 비가역성은 불규칙적인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이준숙(1992)은 죽음의 인과관계 개념과 보편성 개념에서는 연령에 따라 체계적인 발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고, 이정희(1988)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 들려주기 효과가 보편성의 영역에서 가장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으며, 서현아(1998)는 죽음 이해 수준이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밝히고 하위 개념의 형성 수준에 있어서 5세~7세에 비가역성 개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러한 연구자들의 견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를 중심으로 구분하여, 죽음개념 발달이 변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죽음을 인지적 개념으로 볼 때, 인지발달은 죽음개념 형성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중요한 척도가 된다. 인지발달단계에 따른 죽음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a. 출생-2세

장연집(1998)은 생후 6개월까지의 영아는 눈앞에 사물이나 사람이 보이지 않으면 그 사물이나 사람을 찾으려 시도하지 않으며, 영아는 어떠한 실체를 볼 수 없다면 그것은 마치 영아에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견해를 제시했다. 즉, 일상생활 속에서 영아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이나 사물이 자신의 눈앞에서 떠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온다는 것을 학습하게 되며, 이를 통해 영아는 점차 사람들이 눈앞에서 안 보인다고 해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학습하게 된다. 영아의 까꿍 놀이는 영아로 하여금 대상영속성을 발달시키고, 눈앞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그것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배우도록 이끌어 주는 개념이다. 영아는 그때부터 존재함과 존재하지 않음 간의 구별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한다(손승원, 1998).

즉, 이 시기의 영아는 죽음의 의미에 대해 실제로 이해하는 것은 어렵지만, 존재의 유무는 구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b. 2세-7세

이 시기에는 말하고 걷는 것처럼 환경과 상호작용하기 위한 기술들이 발달하게 된다. 연구자들은 죽음에 대한 최초의 이해가 약 3세 정도에 생긴다고 보고 있다(Nagy, 1948). 이 시기에는 죽음에 대해 개념적인 사고를 한다고는 기대할 수 없으나, 죽음이나 죽은 것에 관한 생각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며 아주 그럴듯하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대개 5세경의 유아는 죽음을 미성숙하게 이해한다고 한다. 그들은 '죽음'이라는 개념, 죽음의 당위성, 보편성에 대한 필수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며, 이것은 죽음을 마지막이라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는 이 시기의 유아들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이해하고 설명할 때 사용하는 사고유형이 미성숙하기 때문으로 보여 진다(장연집, 1998).

즉, 전조작기의 유아들은 죽음에 대해 잘못 이해하거나 불충분하게 이해를

한다. 즉 이시기의 유아들은 죽음을 마치 잠을 자거나 일시적인 휴식 또는 일시적인 손상과 같이 가역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c. 7세-12세

이 시기의 아동들은 죽음이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이며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김양남, 1993). 인지적, 정서적, 그리고 부가적인 변인들에 의해 그들은 죽음에 대한 개념을 발달시켜나가게 된다. 또한 죽음의 어휘를 이해하고 죽음의 원인에 대해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시기의 아동은 죽음을 기능의 단절로서 이해한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하여 자신들의 부모가 지닌 신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장연집, 1998). 이 시기의 유아들은 죽음의 원인을 사고나 도구에 의해 발생되는 죽음의 외적요인과 늙음과 병과 같은 죽음의 내적요인에 의한 것임을 구별한다고 한다.

즉,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유아 대다수가 죽음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하고 있다. 특히 이시기의 유아는 죽음을 선행, 죄, 귀신, 영혼과 같은 초자연적인 요인을 포함시켜서 이해하고 설명하고 있다고 한다(Nagy, 1948).

d. 12세 이후

Piaget의 인지발달에 따르면 형식적 조작기에 이르러야만 죽음을 완전히 이해한다고 한다. 즉 이시기에 해당되는 아동들은 죽음을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불가역적인 것이며, 모든 삶의 기능도 정지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한다는 필연성 개념으로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시기는 생각을 분리시키고 재구성하며 새로운 형태로 연결시킬 수 있게 되며,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역

할, 새로운 관계를 발달시킨다. 즉 청소년들은 죽음의 특징이 무엇이고 죽음 이후의 존재는 무엇인가와 같이 철학적이고 추상적으로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이다(김인자, 1984). 청소년기 죽음개념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된 요인에는 개인적, 문화적, 경제적, 종교적인 영향 등이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아기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성장해 나가면서 정확하고 완전한 죽음개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죽음개념은 성장에 따라서 순서적인 발달을 한다고 볼 수 있다.

4. 유아기 죽음 교육

a. 유아기 죽음 교육의 필요성

죽음은 생물체에 있어서 지극히 자연적인 그리고 피할 수 없는 없는 현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현대인들의 반응은 '거부'라고 한다(Kim, 2001). 부모나 교사들은 유아들에게 죽음보다 탄생을 이야기하는 것에 편안함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태도는 어떻게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지, 방법론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Smilansky, 1987). 성인들이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불편해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유아가 죽음이라는 개념을 인지할 수 없다고 가정하기 때문이다. 이는 Piaget의 인지발달단계를 따르는 교육자와 연구자에 의한 것이다. 그들의 주장은 전조작기에 추상적 사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에 들어서야 추상적 사고가 이루어질 때, 죽음에 대한 이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죽음에 대한 교육은 유아에게 연령적으로 적합하고 인지적으로 적합할 때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유아가 9세~10세가 되면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할 수 있다(한은주, 2009).

가정이나 교육기관에서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은 오히려 유아들에게 죽음에 대해 비정상적이고 부적합한 개념을 형성하는데 원인이 되기도 한다(양진희, 2006; 정경숙, 1996). 성인들이 유아와 함께 죽음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 하는 것을 회피함에도 불구하고 유아들은 일상생활 가운데 죽음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관찰하게 된다. 또한 매스미디어나 컴퓨터의 발달과 보급을 통한 전파로 아동들은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고, 이를 통한 정보의 전파로 유아들은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전달되는 허구적, 추상적, 폭력적 죽음에 유아들은 끊임없이 노출되어 있다. 이런 매체를 통해 획득한 유아의 죽음에 대한 개념은 부정적인(negative) 정서, 즉, 슬픔과 불안, 두려움의 정서와 연결되기 쉬우며, 이는 유아들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인식을 갖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으로 인해 죽음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될 때 정신적 문제나 신체적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천성문·이영순, 2000). 이처럼 유아들의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은 유아에게 인성발달, 정서적 발달, 사회적 발달에도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한은주, 2009). 죽음에 대한 잘못된 개념을 막고,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발달에 적합한 교육이 교육기관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죽음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Smilansky, 1987).

죽음교육은 죽음, 임종의 과정, 사별에 대한 통합적인 교육을 의미한다(문영석, 2005). 죽음교육의 요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죽음은 자연적 순환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둘째, 유아들과 청소년들도 죽음과 죽음으로 인한 슬픔 등 인생의 전 과정을 알 권리가 있음을 인식시킨다. 셋째, 임종을 앞둔 환자도 환자이기 이전에 한 인간이므로 존중하고, 병상에 있을지라도 고유한 개성을 인지해야함을 인식시킨다. 넷째, 유족의 사별로 인한 고통과 슬픔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이에 따른 치유가 필요함을 인식시킨다.

죽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교육을 통하여 지속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이루어

져한다.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몰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수성을 조장하는데 있다(조메리명희, 2009). 즉 죽음교육은 삶을 위한 것이다. 잘 조직된 죽음교육 프로그램은 아동들로 하여금 죽음의 개념을 이해하고 수용하게 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을 것이다.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정보적 개념을 제공해 주고,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해 준다(한은주, 2009). 유아들의 죽음과 삶의 가치를 이해하도록 돕고 주변의 죽음의 경험을 인정하는 방법을 통해 슬퍼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통로를 찾아주고자 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죽음교육의 중요성을 통해 우리는 유아에게 죽음교육의 필요성과 함께 유아들을 위한 죽음교육의 어려움을 알 수 있었다.

b. 세계 각국의 죽음교육

죽음에 대한 인식과 접근은 각 나라와 문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정규 교육과정으로 죽음교육이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까지의 죽음교육을 시행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주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호스피스단체 등에서의 종교적 돌봄으로서의 죽음교육 프로그램들이 대부분이다. 유아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철학적 요소가 강한 사회과학적 개념을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교사의 적극적인 개입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교사들은 죽음에 대한 유아들의 흥미나 호기심어린 질문에 적당한 방법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김영옥·박미자, 2007). 그로인해 여러 나라의 죽음에 관한 교육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미국

미국에서 초·중등교육에 포함시키는 죽음의 준비교육은 1979년에 발간된 Andre Golden의 저서 「어린이들에게 죽음에 대해 가르치는 법」을 활용한다. 5세에서 6세 이하의 어린이들에게 생명의 태어남, 성장, 죽음 등에 대해서 설명하며, 식물의 씨나 낙엽 등을 관찰하면서 자연의 순환을 가르치고 무생물과 비교하게 한다. 가정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의 죽음을 이야기 하고, 때로는 묘지를 방문하여 비석의 의미, 성묘의 의미, 꽃으로 장식하는 의미 등 어린이들이 자연스런 감상을 하며 서로 느낌과 생각을 나누게 한다. 그 외에 소설이나 동화책을 서로 읽게 하고 '주인공이 나 자신이라면 어떠할까?' 등을 이야기하게 하거나 또는 잡지나 앨범에서 여러 시대에 살던 분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성장, 노화과정에 대해 서로 이야기한다(방수동, 2006, 재인용).

(2) 독일

1984년 독일 문학가들이 문학 작품 속에 나타난 '늙음과 죽음'이라는 주제로 토론한 것을 계기로 학교수업과목으로 '죽음교육'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학교수업에서 진행되고 있다(고영철, 2004). 독일의 학교는 종교 교육의 틀 안에서 죽음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최종학년에 이르기까지 아동의 성장 단계에 맞추어 자연스럽게 죽음교육을 실시한다. 죽음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죽음과 장례, 자살, 인간다운 죽음, 안락사, 임종환자의 태도와 보살피는 자세 등을 다룬다. 또한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주의와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불가피한 죽음, 회피할 수 있는 죽음 등을 포함한다. 마지막으로 죽음의 해석인데 동서고금의 철학과 종교에서 보는 죽음의 의미, 사후세계에 대한 탐구를 다루고 있다(고영철, 2004; 장연집, 1998). 따라서 죽음교육의 총체적 목표는 학생으로 하여금 죽음이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현실임을 인식하게 하고, 죽음에 대한 질문이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뜻있고 불가결한 학습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즉, 삶을 준비

시키려는 것이다.

(3) 일본

일본의 죽음을 금기시 하는 경향과 죽음교육 연구에 대한 개념 자체의 낯설음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2002년 학교 공식 교육과정의 채택과 함께 점차 수명이 길어지면서 혼자 남는 사람들과 자살의 증가로 인해 죽음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다양한 형태의 지지그룹과 모임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조메리명희, 2009). 교육내용을 살펴보면, 임종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상실과 슬픔에 대한 이해, 죽음에 대한 두려움 줄이기, 자신의 장례식 준비하기, 시간의 소중함 발견하기, 죽음에 대해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사후세계의 가능성 생각하기 등이다(고영철, 2004). 학교교육에 있어서 죽음교육은 1980년대 초등학교나 고교에서 교육실천이 미약하지만 시작되었다. '죠에츠 교육대학 생명을 생각하는 모임'은 학교나 지역에서의 죽음교육 수업을 하기 위한 인재를 파견하거나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고영철, 2004).

(4) 영국

영국에서의 죽음교육은 죽음의 필연성에 대한 인식, 자신의 죽음과 유의미, 다른 사람 죽음에 대한 감정 다루기, 사회적 윤리적 이슈들에 대한 자신의 가치관 명료화 등을 목적으로 한다. 영국의 죽음교육은 Cicely Saunders에 의해서 근대적 호스피스가 탄생했고, Babara Ward에 의해 중고교생용의 「좋은 비탄(Good Grief)」이 출판되어 죽음교육에 활용되고 있다(고영철,

2004). 비탄교육은 다름 아닌 죽음교육이며, 비단 비탄뿐만 아니라 죽음에 대한 공포, 불안, 슬픔, 상실감, 고독감 등의 체험을 감당하고 성장의 양식으로 삼아야 하며 이들에 대한 주위의 이해와 원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죽음에 대해서 질문하고 관심을 가지며 토론할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죽음교육의 기회로는 소중한 사람(부모, 형제, 친구 등)이 죽었을 때, 학교의 교사나 학급친구가 죽었을 때, 매스미디어를 통해 유명인의 죽음이 보도되었을 때, 재난이나 사고로 많은 사람이 죽었을 때, 친지가 병사했을 때 등이다. 이외에도 자살, 이혼, 장례의 의의, 사후생명의 고찰, 비탄의 과정과의 대결 등 다양한 것이 수록되어 있다. 죽음교육을 문헌 교육보다 의사나 간호사 그리고 호스피스 등을 통한 실질적 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조메리명희, 2009).

본 절에서 세계의 죽음교육 실태를 살펴보았다. 세계의 죽음교육을 통해 죽음교육의 다양성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세계의 다양한 죽음교육에 대한 이해와 우리나라 죽음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키워야 할 것이다.

Ⅲ. 연구방법

A. 분석대상선정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글 텍스트와 그림 텍스트 모두 죽음에 관련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룬 그림책 24권이며 이를 선정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다.

첫째, 비확률적 유의표집으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과 관련된 최근의 선행연구들(박현경·윤현민, 2008; 한은주, 2009)과 아동문학과 관련된 국내외의 서적(현은자·김세희, 2010), 한국도서관 협회, 인터넷 서점을 참고하여 죽음을 다룬 그림책 64권의 목록을 1차로 수집하였다.

둘째, 1차 선정된 도서가운데 이경주·황혜정·라정란·홍정아·박재순(2006)이 제시한 좋은 죽음의 개념 분석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그림책을 2차적으로 32권 선별하였다. 이경주 외(2006)가 제시한 좋은 죽음개념의 속성은 7가지(존엄성, 자기조절, 편안함, 최적의 관계, 적절성, 죽음준비, 부담감소)범주로 나누어져 있다.

셋째, 2차 선정된 도서들 가운데 글 텍스트를 위주로 하고 있어 유아가 읽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도서를 제외하고 글의 문학성과 그림의 예술성을 골고루 갖춘 그림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이는 그림이야기책은 그림 없이도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림이 글을 보조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의 그림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현은자·김세희,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글과 그림이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여 통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하는 그림책만을 분석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유아교육전문가 1인과 협의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선정된 24권의 목록은 <부록 1>과 같다.

B. 내용분석

본 연구는 유아용 그림책을 분석하여 그림책에서 죽음의 대상이 어떻게 나타나 있는지, 죽음의 개념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유아에게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그림책을 이해하고 조직하는데 유용한 내용분석(content analysis) 연구방법을 채택하였다.

내용분석 연구방법은 인간이 이미 만들어 놓거나 남겨 놓은 자료를 관찰하고 분석하는 문헌 연구의 한 유형으로 기록물에 관한 비 수량적 자료를 수량적 자료로 변형시키는 작업이다(이은해, 1990). 내용분석이란 언어나 문자로 표현된 의사소통의 내용을 객관적·체계적·수량적으로 기술하는 연구방법(이종승, 2011)이고, 비구조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자료를 면밀한 해석을 통하여 어떠한 결론을 추론하는 과정으로서, 커뮤니케이션 자료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하는 방법으로 정의되기도 한다. 내용분석은 탐구대상에 있는 자료가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의 특징을 특정한 분석 준거나 관점에 근거하여 재해석함으로써 메시지에 숨어 있는 또 다른 진의를 추론하는 방법이다. 커뮤니케이션의 분석을 위하여 처음 도입된 이 분석 방법은 주로 단어와 주제의 발생빈도를 알아보는 양적 분석의 형태로 발전하여, 이제는 문화적인 산물·꿈·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교과서·영화·잡지·자서전·일기·편지 등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으로 확대되기도 하였다(김영천, 1997).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우리는 죽음의 대상, 죽음의 개념, 죽음의 의미를 내용분석연구를 통해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한다. 즉,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은 누구이며, 유아들에게 죽음을 어떠한 것이라 표현하는지, 죽음에 대한 다양한 양상과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 유아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C. 연구절차

본 연구의 연구절차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이루어졌다.

먼저, 분석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그림책을 2011년 10월~12월까지 수집하였고, 수집한 그림책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여 제외 또는 보충하는 작업을 하였다. 다음으로 2011년 10월~2012년 2월까지 그림책에서 죽음의 대상, 죽음 개념, 죽음의 의미에 따라 분류하였다. 최종 선별된 그림책은 <부록 2>의 준거표에 맞춰 분류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그림책에 담긴 내용분석은 2011년 10월~ 2012년 4월까지 이루어졌다. 분류된 그림책은 여러 번 읽고 검토하면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대한 공통된 요소를 발견하여 이를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단어를 기록하고 이를 바탕으로 범주화하기 시작하였다. 즉, 단어들 간의 상위개념과 하위개념을 분류하였고, 다시 하위개념을 재분류해가는 과정에서 관련 있는 내용들끼리 연결하여 분류하고, 분류한 내용을 명명화하여 범주화 목록을 작성하였다. 또한 서로 중복되는 부분은 함께 포함시키기도 하고, 그 표현이 명료하지 않은 범주는 수정하여 보완하는 작업을 거치면서 주제 또는 의미 생성의 작업에 들어갔다. 본 연구자는 도출된 다양한 단어와 구, 절의 면밀한 읽기와 분석 그리고 추론을 통하여 이들 자료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설명해 줄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이나 범주를 만들고 이를 주제로 표현함으로써 의미를 생성하였다. 그림책의 분석 작업은 내용 분석을 하면서 유사한 범주를 수정· 재조정하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Ⅳ. 연구결과

A.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

본 장에서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대상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 표현은 다양한 상황과 대상으로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러한 죽음의 표현은 유아의 정서와 타인과 함께 살아가야 할 사회적 관계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김현희·박상희, 2009).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여러 죽음 대상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친구, 애완동물의 죽음, 자식, 친구 부모, 자신, 타인 등으로 표현되고 있었다.

1. 조부모의 죽음

조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유아에게 있어 조부모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신세니·조희숙(2009)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부모의 대리자이며 소외된 이들의 대변인이고 인생주기의 선 경험자, 지혜자, 생명력의 원천자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듯 조부모는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해주는 분들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있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대상으로 가장 많이 표현되어 있는 사람이 조부모였다. 여기에서 그림책 속에 나타난 다양한 조부모의 죽음표현을 살펴보고자 한다.

[사례 1] “이폴린,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엄마는 맑은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며 아이처럼 울먹였어요...(중략) 할머니의 요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폴렌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안녕……할머니.’하지만 마음 속으로 말했을 뿐 너무 슬퍼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끝없는 나무」중에서

위 사례에서 이폴린은 갑자기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머니의 존재를 다시 생각하면서 할머니의 죽음을 이겨내기 위해 ‘끝없는 나무’를 여행한다. ‘끝없는 나무’를 통해 삶이란 나 혼자만이 아닌, 가족이라는 연결고리가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 할머니를 통해 가족을 느끼며 할머니는 우리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끝없는 나무는 할머니, 할머니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를 나타내며, 우리의 연결고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 나무를 ‘이 세상 나무들의 어머니’라고 표현하며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연결이라고 말하고 있다.

할머니의 죽음을 슬퍼하지만 할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며 슬픔을 이겨내고 있다. 할머니의 죽음은 너무나 커다란 슬픔이지만 할머니가 있었기에 우린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며 죽음을 이겨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슬픔을 끝없는 나무를 통해 할머니의 존재와 가족이라는 공동체적인 삶을 느끼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인정의 단계라고 해석된다.

[사례 2] “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중략)

사흘 후 리벡 할아버지는 무덤에 묻혔어요. 리벡 마을 사람들이 모두 장례식에 참석했어요.

“하느님, 이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아이들이 엉엉 소리내며 울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에게 배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에서 할아버지는 자기의 죽음을 예견하고 죽음을 준비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며 남은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남겨주고 싶어 하는 할아버지의 바람이 들어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한 아이들은 죽음은 이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슬퍼하며 눈물을 보인다. 할아버지는 죽어서도 아이들에게 배를 주고자 무덤에 배나무를 심어달라는 유언을 남긴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을 준비하는 할아버지를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경주·황경혜·라정란·홍정아·박재순(2006)은 좋은 죽음개념의 속성에서 하위범주의 하나로 유산남기기를 포함시켰다. 여기에서도 배나무 할아버지는 자기의 죽음을 직시하며 남아 있는 아이들에게 무엇인가를 주고자 무덤가에 배나무를 심어달라고 하였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을 준비하는 죽음당사자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죽음을 준비하는 할아버지를 통해 죽음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고 남아 있는 사람들에게 죽어서도 도움을 주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할아버지의 사랑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다. 죽음의 준비모습을 통해 죽음의 또 다른 모습인 긍정적인 죽음을 유아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사례 3] 위층에는 병든 할머니가 계셔요. 죽음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지요....(중략)
아이들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오래 슬퍼하지 마」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죽음을 사람으로 형상화해서 나타내고 있다. 죽음이 아픈 할머니를 데리러 오자 아이들은 죽음을 피하기 위해 죽음에게 여러 방법을 사용한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죽음이 두렵기만 하다. 죽음은 아이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이 없다면 삶은 의미가 없다고 이야기해준다. 아이들은 죽음의 이야기를 통해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하지만 할머니가 그리울 때면 죽음의 이야기를 떠올리며 할머니를 생각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슬프지만 받아들이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할머니는 병들었고 나이가 많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지만 아이들은 죽음을 막으려한다. 이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막연함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다. 죽음이라는 것이 피할 수도 없는 것이며 누군가에게는 꼭 한번은 찾아오는 것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하며 죽음에 대해 유아들에게 이해시키고 있다.

[사례 4] 할아버지는 오늘 나가서 놀 수가 없단다. 우리 내일 아프리카로 가요. 할아버지가 선장이 돼 줄 수 있죠?

「우리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는 할아버지와 지내는 사계절을 묘사하며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더 이상 할아버지랑 지낼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다. 할아버지도 아기 때가 있었으며 시간이 지나면 나이를 먹고 또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통해 할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이해시키고 있다. 할아버지도 아기였을 때가 있었는지 궁금해 하는 손녀를 통해 사람의 일생을 알려주며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시키고 있다.

[사례 5]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단다. 할아버지처럼 백 년 넘게 사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느님이 고생했다고 할아버지를 데려가실 수도 있단다."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구나. 아주 긴 세월을 사셨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구나. 할아버지는 어느 날 아침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고조할아버지가 집안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어른 이시다는 것을 알려준다. 고조할아버지도 106년 전에는 아기였고 아이가 자라 아빠가 되고, 할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말해준다. 고조할아버지도 젊은 시절에는 많은 일을 했고, 나이가 드니 책을 읽을 때도 돋보기가 필요하며, 항상 주무시기만 한다는 것,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는 것, 사람은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길은 나에게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6] “할아버지는 그냥 주무시는 것 같아요.”

“주무시는 게 아니라 돌아가신 거야.” 엄마가 말했어요.

“내가 할아버지를 간질여 볼까? 그럼 깰지도 몰라.”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위 사례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여 할머니, 아빠, 엄마, 친척들, 모든 사람들이 슬픔에 빠진다. 하지만 나는 왜 그러는지 알지 못한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할아버지가 살아 있을 때 했던 것들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할아버지의 죽음으로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으며 할아버지를 떠올리는 것이 슬픔이지만 아름다운 추억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유아에게 다시는 만나지 못하며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례 7] 이제 할아버지는 너무 창백해져서 곁에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 어른들은 말해.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소리치지.

“그래서 뭐?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귀찮은 거라도 있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선 다시 이야기를 들려줘.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뺨도 붉어져. 할아버지와 나는 무척 즐거워.

「할아버지의 붉은 뺨」중에서

위 사례는 할아버지는 죽었지만 할아버지는 항상 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할아버지와의 이야기를 떠올리고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하며 할아버지와의 삶을 떠올려본다. 과거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과거를 떠 올리며 사는 사람도 있다. 여기서는 할아버지와의 경험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살아가는 동안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죽음이 만남의 끝이 아니며 죽음은 살아 있는 사람의 믿음으로 항상 잊혀 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사람들은 할아버지가 죽었다고 표현한다. 하지만 나는 항상 할아버지를 볼 수 있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이것은 환상동화이기에 가능하지만, 죽은 다음에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이해시키는 하나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다.

[사례 8] 손녀 돼지는 할머니의 침대에 올라갔습니다. 손녀는 두 팔로 할머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는 서로 아침까지 꼬옥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위 사례, 할머니가 남긴 선물에서는 할머니와 함께 살아온 손녀가 할머니가 기운이 없고 먹지도 않자 할머니가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할머니는 말합니다.

“잔치를 열고 싶구나.”

“그것은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란다. 마을을 천천히 걸으면서 나무와 꽃과 하늘을 눈으로 보며 즐기고 싶구나……. 모든 것을 말이야!”

할머니의 이 말은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떠나는 사람은 자기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기억하고 싶어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9] “어, 이상하다! 아니야. 아마 공원에 계실 거야.”...(중략)

“아니요, 우리는 외할아버지를 찾고 있어요.”...(중략)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 안 계신단다. 우릴 떠나셨어요.”...(중략)

“아마 길을 잃어버리신 걸 거예요. 항상 그러시잖아요.”...(중략)

“이젠 휘파람을 불 수 있단 말이에요!”...(중략)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할아버지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은 유아의 마음을 나타내고 있다.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기억하며 할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마음을 보여주며 할아버지에게 배운 휘파람을 불며 할아버지를 떠올려 본다. 할아버지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하고 있던 유아에게 할아버지의 죽음은 충격이고 슬픔이다. 할아버지가 자주 갔던 곳을 가보고, 할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다른 곳에 있을 것이라고 죽음을 회피한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죽었다는 것을 듣고 죽음을 받아들인다. 할아버지에게 배운 휘파람을 불며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떠올리며 할아버지의 죽음을 이겨낸다.

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유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순서. 즉, 죽음의 적절성에 대해 유아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죽음에는 일정한 순서 아닌 순서가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분석대상 그림책에 조부모의 죽음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유아에게 나이가 들면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해야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2. 부모의 죽음

부모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이르는 말이다. 유아에게 있어서 하나의 성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부모를 잃은 유아는 어떤 마음일까? 부모를 잃은 유아를 통해 유아들에게 죽음이란 어떠한 것인지 보여주고 있다. 부모 중 한 사람의 부재로 가정에서의 부모의 역할과 부모가 없을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 여기에서 우리는 부모의 죽음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지 보고자 한다.

[사례 10] 그런데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는데, 엄마가 땅 밑에 있대요. 지렁이랑 벌레들이랑 함께....(중략)
엄마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새처럼 훨훨 날아다닌대요....(중략)
이 아빤 잘 알고 있단다. 엄마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아!...(중략)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단다.

「나비엄마의 손길」중에서

위 사례는 엄마의 죽음을 묻는 아들에게 아빠는 엄마는 항상 옆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엄마는 땅도 아니고 하늘도 아닌 항상 옆에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엄마의 죽음을 느끼지 못한 아이는 엄마의 존재를 느끼고 싶어 한다. 죽음이라는 것은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다. 하지만 엄마는 항상 옆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떠나간 사람과 떠난 사람은 서로 그리며 살아가고 아쉬움이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죽은 후의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사례 11] 저런, 너 도망쳤구나! 엄마도 그랬잖아요! 엄마는 죽었으니까 더 나빠요. 오, 얘야, 죽다니?...(중략)

「채마밭의 공주님」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엄마를 잃은 하나는 동생 마테와 함께 엄마를 그리워하며 산다. 하나는 엄마대신 일을 하고 동생을 돌보며 힘들어 한다. 아빠는 일을 하며 아픔을 잊으려 한다. 슬픔을 이기지 못한 하나는 집에서 나와 엄마의 추억이 있는 채마밭으로 간다. 자기의 삶을 극복하기 위해 죽은 엄마가 가꾸던 채마밭으로 떠나 본다. 채마밭의 하나는 엄마를 떠올리며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그리워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은 자기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느낀다. 하나는 자기뿐만 아니라 아빠, 마테도 노력하고 있고, 엄마의 목소리 없이도 잘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기에서는 엄마의 죽음을 그리워하는 아이가 엄마의 방과 엄마의 유품을 통해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위로를 받지만 엄마는 다시 볼 수 없고, 남은 가족들은 자기 일은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하나가족은 가족이 함께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부모의 죽음은 유아에게 커다란 충격일 것이다. 부모의 죽음은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런데 유아는 얼마나 커다란 충격이겠는가?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서 부모에 대한 죽음을 표현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죽음으로 남아 있는 가족의 또 다른 삶의 모습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을 재해석해야 한다.

3. 형제·자매의 죽음

형제·자매는 남자 형제와 여자 형제를 가리키는 말이다. 유아에게 있어서 형제·자매는 부모이상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누구나 형제·자매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핵가족의 증가로 요즘은 한 자녀 가정이 많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틀 속에서 형제·자매의 소중함의 의미를 찾고 형제·자매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보여주고 있다.

[사례 12] '왜 다들 울고 있는 거야?'

이 모든 것이 무서웠지만 프레드는 울지 않아요.

올빼미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조가 너무 아파서 나도 낫게 해 줄 수가 없었어요."

조금 있다 동물 친구들이 집 안으로 들어와요. 모두 조의 곁에 빙 둘러서서 조의 작고 새하얀 얼굴을 건너다봅니다. 조가 죽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어요. 모두가 울고 있어요.

그때 아기 돼지가 와서 말합니다.

"프레드야, 이제 넌 동생이 없어진 거야. 너무 슬프겠다!"

그렇지만 프레드는 생각합니다. 올빼미 의사 선생님이 조를 아침까지 꼭 낫게 해 주실 거라고요. 프레드는 밖으로 나가 아기 돼지랑 숲 속에서 놀고 싶어졌어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사례 12-1]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아니."

고슴도치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동물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 그것도 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면 죽게 되는 거야. 조는 정말이지 아직 죽을 차례가 아니었어.”
프레드는 아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그럼 다시는 조와 놀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 네가 조를 생각할 때, 네 마음속에서만 같이 놀 수 있지.”
고슴도치 할아버지가 대답합니다.
프레드는 눈물이 흐르는 걸 느낍니다.
“이제 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조를 숲 속에 있는 작은 들판에 묻을 거야. 그 때 모두 거기로 갈 거다. 그리고 조에 대해서 뭔가를 말할 거야.”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동생 조는 아픔으로 죽음을 맞이한다. 조의 죽음을 맞이한 프레드는 동생이 없어졌다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죽으면 동생이 아프지 않은지 궁금해 한다. 또 고슴도치 할아버지를 통해 누구나 한 번밖에 죽지 않는다는 것, 나이가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을 배운다. 여기에서는 유아들에게 누구나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것도 알려준다. 동생의 죽음을 슬퍼하고 죽음을 회피해 보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부인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동생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가족들을 위해 친구들은 아픔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픔을 극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고 더불어 살아간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

형제·자매의 죽음은 조부모, 부모, 다음으로 커다란 아픔일 것이다. 우리는 형제·자매가 많이 없는 이 사회에서 형제·자매의 죽음을 통해 형제·자매의 소중함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다. 죽음은 순서적인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 우리는 죽음에는 어떤 원인이 있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맞이하면 그 가족만의 슬픔뿐만이 아닌 가까운 친척, 이웃들의 아픔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주변의 도움이 많은 힘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의 슬픔뿐 아니라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 우리 사회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4. 친구의 죽음

친구는 가깝고 오래 사귄 사람,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래인 사람을 낮추거나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주변 친구가 형제·자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유수경·정명숙·송주연(2008)은 친구를 돌봄, 공유, 경쟁적, 지배적관계로 나타내고 있다. 친구는 유아들에게 많은 의미가 있다. 이런 친구의 죽음을 생각하며 친구에 대한 여러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사례 13] 난 달나라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

난 달나라 여행을 준비하고 있어.

우와……. 너 그거 모르지? 수업시간에 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가 설명해 줄게.

그래 좋아!

화성, 해왕성, 목성, 토성…….

우와! 하지만 나는 달이 가장 좋아.
별을 보면 놀이기구 탔을 때가 생각나……. 너도 기억나?

「안녕, 니콜라」중에서

위 사례에서 친구 니콜라는 달나라 여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니콜라는 아파서 검사를 받고 병원에 자주 간다. 하지만 몸은 좋아지지 않는다. 어느 날 니콜라는 마지막 인사를 한다. 나는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 니콜라를 생각한다. 죽음을 달나라 여행으로 표현한 것은 유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표현이다. 아프다는 것은 막을 수 없고, 아프다는 것은 이별을 예고하는 것임을 말하며 죽음에는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병에 걸리면 죽을 수 있고 나이와는 상관이 없다는 것, 그리고 누구도 피해 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례 14] “리사가 유치원에 갈 준비가 됐나요?”“리사는 오늘 유치원 못 간단다.” “어디가 아픈가요?”...(중략) 별들이 저렇게 반짝거리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어요! “하늘나라에 파티가 열리나 봐. 아주 굉장한 사람을 맞이하는 파티일 거야!”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친구의 아픔을 통해 친구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을 인식한다. 하지만 친구가 좋아하는 별을 보며 친구는 죽으면 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친구의 죽음을 느끼며 별이 되어 영

원히 살아갈 것을 희망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죽어서 별이 되어 항상 같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들어 있다. 죽음은 슬프고 아프지만 또 다른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고 있다.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을 거란 희망이 담겨 있다.

친구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가까이에 있고 친구를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유아는 그것을 통해 죽음을 배우고 친구가 또 다른 세상에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 후의 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었다. 정대련·이현주(2003)는 새로운 신체로 환생하거나 승천한다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는 영혼불멸(사후세계, 환생, 올바른 삶의 지향)의 세계를 말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 후의 세상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 죽음의 또 다른 세상을 알 수 있었다.

5. 애완동물의 죽음

애완동물이란 좋아하며 가까이 두고 귀여워하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 유아에게 있어 애완동물이란 가족이상의 존재일 것이다.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가족을 잃은 것 같은 슬픔을 느끼며 유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가장 친한 친구인 애완동물이 유아들에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었다.

[사례 15] 개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에는 날개가 없어도 돼요.
하느님은 개들이 달리기를 좋아한다는 걸 아시니까요.…(중략)
하늘나라에서 개들은 자기가 좋은 만큼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영영 머무를 수도 있고요. 개들은

하늘나라에 옛 친구가 올 때까지 있을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 개들은 바로 천사 개들이랍니다.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유아들과 친숙한 친구인 개들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음은 우리에게 여러 의미가 있다. 여기에서는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기보다는 늘 주변에서 우리를 보고 있고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여 친구를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죽으면 개들이 하늘나라로 가서 친구인 아이들이 올 때까지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산다고 표현하고 있다. 죽으면 또 다른 나라에서 산다는 것, 이것이 사후세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보여주고 있다.

[사례 16] 우리 집 고양이 바니가 죽었어요....(중략) 아침이 되자, 엄마는 바니를 노란 보자기를 쌌습니다. 아빠는 마당에 있는 나무 밑에 바니를 묻었습니다. 옆집 사는 내 친구 애니는 꽃다발을 가져왔습니다. 나는 바니의 좋은 점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고양이 바니의 죽음을 통해 죽음은 슬픔뿐만 아니라 죽는다는 것은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바니의 죽음으로 바니에 대한 것을 떠올리며, 바니가 살아서 우리에게 준 행복을 느낄 수 있다. 바니를 땅속에 묻으면서 죽는다는 것은 슬픔만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준다. 또한 바니가 땅 속에서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도 알려준다. 바니의 죽음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은 슬픔만 주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희망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을 긍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사례 17] 오늘은 슬픈 날이에요. 구름이가 심장사상충이라는 고통스런 병에 걸렸다고 수의사 선생님이 말하셨어요. 이미 기생충이 심장을 꽉 틀어막고 있어 손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수의사 선생님은 몸이 늙고 쇠약한 구름이가 몹시 힘들어할 거라며 안락사를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고 하셨어요.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동물들에게 주사로 약물을 넣어서 죽게 하는 것이에요.

「슬픔아, 안녕?」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기르던 개가 병에 걸려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자, 안락사를 시키게 된다. 아파서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구름이의 죽음을 우리 집에 온 손님이 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남은 사람은 가버린 사람을 다시 볼 수 없다는 것을 표현한 것이다. 또한 죽음을 선택하여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 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죽음의 여러 모습 중 선택적 죽음을 보여주고 있다.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의 여러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유아가 접할 수 있는 죽음은 다양하지만 우리는 구름이를 통해 선택죽음(안락사)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이유, 죽음에 대한 이해, 사후세계에 대한 여러 가지를 볼 수 있었다. 죽으면 또 다른 일을 하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 애완동물의 죽음으로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의미를 찾을 수 있었다.

6. 자식의 죽음

자식이란 부모가 낳은 아이를 그 부모에 상대하여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자식의 죽음을 통해 부모의 슬픔을 알 수 있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는 죽음의 여러 양상이 보여 지고 있다.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아빠를 통해 우리는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데는 순서가 없으며, 살아남은 자는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18] 내가 가장 슬플 때는 내 아들 에디를 생각할 때입니다. 에디는 죽었습니다. 나는 에디를 사랑했습니다. 아주, 아주, 사랑했지만 그 아이는 죽고 없어요. 에디를 생각날 때면 정말 울화가 치밀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 녀석이 감히 그렇게 죽어 버릴 수 있어? 어떻게 그 녀석이 감히 아빠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고!"

「내가 가장 슬플 때」중에서

위 사례는 자식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슬픔을 나타내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으며 죽음은 그리워해도 다시는 만날 수 없고,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아들의 죽음으로 우리는 슬픔에 빠진 아빠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아들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성장하면서 주는 즐거움을 추억한다. 하지만 죽은 아들이 자신에게 너무나 많은 아픔과 슬픔을 주었는지 보여주고 있다. 자신의 아픔을 이겨내기 위해 아빠는 죽은 어머니를 그리워한다. 이것은 아픔을 이겨내는데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어머니도 옆에 있지 않고, 자식을 잃은 아

빠는 자식이 자라는 모습을 상상하며 희망을 가진다. 우리는 여기에서 아픔을 이겨내는 아빠를 통해, 스스로 아픔을 이겨내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우리는 주변에 많은 죽음을 접할 수 있지만 자식의 죽음을 맞이한 아빠를 통해 모든 생물은 언젠가 죽는다는 것, 모든 생물은 한 번 죽으면 다시 살아 돌아올 수 없다는 것, 모든 생물은 죽고 나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친구 부모의 죽음

친구는 우리에게 많은 의미 있는 존재이다. 그런 친구의 부모도 많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유아에게 아빠, 엄마는 커다란 성과 같은 존재이다. 그런 것처럼 친구의 부모도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한다.

[사례 19] 내 친구 키미는 아빠도 엄마도 없다. 고베에 살 때, 큰 지진이 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그건 또 어떤 느낌일까? 열심히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다. 아빠와 엄마를 없애 볼 수는 없으니까.

「어떤 느낌일까?」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키미는 지진으로 부모를 잃었다고 한다. 자기의 경험이 아닌 다른 사람의 아픔을 통해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한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경험할 수 없으며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다른 사람을 통해 무엇인가를 배운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 죽음이라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이다. 누구나 죽음을 만날 수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상황은 다양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죽음은 누구든지 맞이해야 하는 것임을 보여

주고 있다.

친구에게 부모의 죽음에 대해 물었지만 친구는 쓸쓸하지만은 않다고 했다.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 그것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이다. 우리는 자기가 처한 상황에서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우고 살아가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

8. 자신의 죽음

자신은 그 사람의 몸 또는 그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자신의 모습을 통해 죽음을 준비하는 다양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죽음을 이해할 수 있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한 번은 경험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20] “너는 누구야?”
“나는 너의 그림자야?”
“뭐? 나의 그림자라고? 그런데 왜 거기에 앉아 있어?”
다얀은 당황해서 자신의 그림자가 있어야 할 곳을 가리켜 보았어요.
“어? 없잖아!” 그림자가 웃었어요.
「그림자 축제」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그림자라는 것을 통해 영혼과 육체의 의미를 말하고 있다. 영혼이 떠나면 육체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영혼과 육체가 헤어지는 것

이라고 말하고 있다. 죽음은 영혼이 떠나는 것이라고 표현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과정은 영혼이 떠나는 때가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준비하지만 불의의 사고가 아닌 나이가 들어서 인생의 생물학적 순서에 맞게 죽음을 맞이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 누구나 오래 살기를 바라는 마음도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보여주고 있다.

[사례 21] 얼마 전부터 오리는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누구야? 왜 내 뒤를 슬그머니 따라다니는 거야?"

"와, 드디어 내가 있다는 걸 알아차렸구나, 나는 죽음이야."

죽음이 말했습니다. 오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연히 놀랄 수밖에요.

"그럼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동안 죽 나는 네 곁에 있었어. 만일을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오리가 사람인 것처럼 표현하면서 죽음이라는 것과 대화를 통해 죽음은 멀리 있지 않고 항상 가까이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한다. 나이가 들던지, 아니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오리는 죽음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하게 된다. 누구나 죽음이 곁에 있지만 느끼지 못한다고 표현한다. 오리는 죽음을 통해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한다. 처음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죽음은 두려움이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친구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면서 편안함을 느낀다. 우리에

게 죽음이란 항상 존재하는 삶과 같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은 죽음이 하나의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례 22]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수명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수명이 다하는 동안 살아가는 것이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두 다 마찬가지이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간의 수명은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태어나서 자라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든다. 하지만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은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한다. 더 이상 못 사는 때도 있다. 슬프지만 살아 있는 모든 것은 그렇다. 그것이 인간의 수명이다. 사람은 저마다 수명이 다르다. 하지만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여기에서는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처음에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을 느끼며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통해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9. 타인의 죽음

타인은 다른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 뿐 아니라 우리는 주변

타인의 죽음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 죽음에 대한 의미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사례 23] 죽은 사람을 위한 정성 어린 의식, 상례

상례는 사람이 죽었을 때 행하는 의례입니다. 죽은 사람을 땅에 묻고 삼년상을 땅에 묻고 삼년상을 마칠 때 까지의 의례를 뜻하지요. 우리 조상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썼습니다. 돌아가신 뒤에도 아주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곁에 머물면서 후손들을 돌본다고 믿었습니다.

「나이살이」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 가려는 마음이 모든 의례 속에 담겨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 그러므로 죽음에 관한 의식의 예를 정성스럽게 지낸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음은 우리의 하나의 과정이며 죽음을 통해 남은 자와 떠난 자의 유대관계가 더욱 형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죽으면 만날 수는 없지만 죽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제사나 죽은 사람과의 추억, 죽은 사람을 생각하게 하는 장소를 통해 죽음은 완전한 이별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사례 24] 그 때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지빠귀 두 마리가 보였어요. 그중 한마리가 베란다 창문을 향해 곧장 날

아갔어요. 꽝! 난 누가 죽는 모습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는 지빠귀 옆에 웅크리고 앉았어요. 지빠귀가 날개를 퍼드덕거렸어요. 부리를 벌리고, 다리를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숨을 거두었지요.

“땅에 묻자.”

푸테가 말했어요.

“불쌍한 지빠귀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해줄게.”

에스테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시 기분이 좋아질 거야.”

푸테가 말했어요.

난 두려움을 완전히 잊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24-1] 삶이 가면 죽음이 오네

너의 노래는 끝났다네. 삶이 가면 죽음이 오네.

너의 몸은 차가워지고 사방은 어두워지네.

어둠 속에서 넌 밝게 빛나리.

고마워, 널 잊지 않으리.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24-2] 죽는 건 한순간이라네

인생은 길고, 죽음은 짧다네.

죽는 건 한순간이라네.

이제 무덤 위에는

풀과 이끼가 자라고 꽃이 피리니,
모든 것이 평화롭다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위 사례에서는 죽는다는 것은 그냥 누워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죽음에 대해 살아 있는 건 모두 다 언젠가 죽는다고 설명해준다. 심지어 우리도 언젠가 죽어서 사라질 거라고 말하고 있다. 죽으면 몹시 슬퍼서 사람들이 울 거라고 말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하고 있다. 아이들은 동물들의 시체를 묻어주면서 무덤도 파보고, 십자가도 만들어 주고, 시를 써서 읽어주기도 한다. 죽음의 의식을 보여주며 죽음의 의식은 신성하며 떠나간 사람에게 예의를 보여주는 것임을 이해시키고 있다. 죽음은 수천 년 동안 계속된다는 것, 죽으면 아플까? 외로울까? 무서울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면서 죽음을 이야기 한다. 죽은 시체를 묻는 것과 직접 죽음을 보는 것의 차이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을 느끼게 하는지 보여준다.

타인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도록 유아들을 지도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을 찾아보았다. 그림책에서는 죽음의 대상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친구, 타인, 애완동물의 죽음, 자식의 죽음, 친구 부모의 죽음, 자신의 죽음, 타인의 죽음 등이 있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가까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는 죽음의 대상을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여기에서는 조부모의 죽음이 가장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애완동물의 죽음,

자신의 죽음이 많이 표현되고 있었고 부모, 형제·자매, 친구, 타인의 죽음 순으로 죽음의 대상이 나타났다. 나머지는 자식의 죽음과 친구부모의 죽음이 가장 적게 표현되어 있었다.

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유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막을 수도 피할 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순서. 즉, 죽음의 적절성, 유아들에게 나이가 들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애완동물의 죽음을 통해 죽음의 이유, 죽음에 대한 이해,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보여주었다. 유아에게 애완동물은 가족과 같은 존재이다. 그러므로 죽은 후의 또 다른 삶을 기대하는 하나의 바람이 보여 지고 있다. 또 자신의 죽음을 표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였다. 죽음이라는 것은 피할 수도 돌이킬 수도 없다는 것을 느끼며 받아들였다. 죽음이라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닌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모, 형제·자매, 친구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죽음에는 순서가 없다는 것, 그리고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 자기만의 슬픔이 아닌 주변의 아픔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아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친구부모, 타인의 죽음으로 우리는 죽음에 대한 여러 가지 모습과 죽음의 의미를 생각할 수 있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대상 분석결과를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

번호	도서명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친구	애완동물	자식	친구부모	자신	타인
1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					○				
2	그림자 축제								○	
3	끝없는 나무	○								
4	나비엄마의 손길		○							

5	나이살이							○
6	내가 가장 슬플 때					○		
7	내가 함께 있을 게						○	
8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가지 좋은 일				○			
9	배나무 할아버지	○						
10	살아있는 모든 것은						○	
11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
12	슬픔아, 안녕?				○			
13	안녕, 니콜라!			○				
14	어떤 느낌일까?					○		
15	오래 슬퍼하지마	○						
16	우리 할아버지	○						
17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	○						
18	저 파란별이 리사예요			○				
19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					
20	채마밭의 공주님		○					
21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						
22	할아버지의 붉은 뺨	○						
23	할머니가 남긴 선물	○						
24	휘파람 할아버지	○						

B.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앞 장에서 본 바와 같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나는 죽음의 대상은 다양하다. 이러한 죽음의 대상과 죽음표현에서 다양한 죽음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는데, 그 개념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은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 '죽음은 다시는 볼 수 없다', '죽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죽음은 원인이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늙어간다',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죽음의 개념을 이와 같이 재구성 하였다.

1.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우리는 죽음의 개념을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떠나 인간은 한 번은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례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사례 25] "이폴렌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 엄마는 맑은 눈물을 소리없이 흘리며 아이처럼 울먹였어요.

「끝없는 나무 중」에서

[사례 26]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나이살이」중에서

[사례 27] 오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중략)

죽음은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28] “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내가 죽으면 배 하나를 같이 묻어다오.” 사흘 후 리벡 할아버지는 무덤에 묻혔어요.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29]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중략)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살지 못한단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중에서

[사례 30] “나도 죽어?” “지금 말고.” “꼬부랑 할아버지가 되면, 그때 죽을 거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31] 구름이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었잖니. 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자.

「슬픔아, 안녕?」중에서

[사례 32] 위층에는 병든 할머니가 계셔요. 죽음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거지요....(중략)
“그러지마, 생명이 가는 길을 멈출 수가 없어.”

「오래 슬퍼하지 마」중에서

[사례 33] 할아버지는 오늘 나가서 놀 수가 없단다.

「우리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34]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단다. 할아버지처럼 백년 넘게 사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느님이 고생했다고 할아버지를 데려가실 수 있단다.”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35] “배니야, 이제 옛날 같지 않을 거야. 나 얼마 못 산대.”

「저 파란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36]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 까요?” “아니.” “동물은 한 번밖에 죽지 않아. 그것도 나처럼 나이가 많이 들면 죽게 되는 거야. 조는 정말이지 아직 죽을 차례가 아니었어.”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사례 37]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무척 슬프단다.”...(중략)

“그래, 그래야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살아 계시지 않아. 죽은 거야.”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38] 여든 살 생신이 지나고부터 할아버지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 하지만 두 뺨은 어렸을 때처럼 다시 붉어졌지....(중략)

이제 할아버지는 너무 창백해서 곁에 있는지조차 알

기 어려워. 어른들은 말해.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할아버지의 붉은 뺨」중에서

[사례 39] “기운이 없구나. 오늘 아침은 침대에서 먹을까 보다.”...(중략)

손녀는 두 팔로 할머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중략)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사례 40]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 안 계신단다. 우릴 떠나셨어요.”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우리는 모든 생물체는 반드시 죽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의 표현은 다양하지만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그림책을 통해 찾을 수 있었다. 이것은 ‘보편성’이라는 죽음의 개념과 일맥 상통하다고 할 수 있다. 보편성의 개념은 모든 생물은 마침내는 죽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함을 의미한다(정경숙, 2000). 즉 어떠한 존재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다.

2. ‘죽음’은 다시는 볼 수 없다

‘죽음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인간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진다는 것, 하지

만 그 헤어짐이 가족이라면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것과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사례 41] "큰일이야! 죽음의 숲으로 가려는 거야. 그곳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어!"
"그럼 그림자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마왕이 시키는 대로 일만 하다가 가엾게 죽게 될 거야."

「그림자 축제」중에서

[사례 42] 할머니는 잎새들 사이를 지나 하늘 위로 천천히 날아갔어요. 할머니 몸은 숨결처럼 가벼워 보였어요. 할머니 요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폴린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43] 사람이 죽으면 본래 왔던 하늘로 편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합니다...
(중략)
우리 조상은 사람이 죽으면 아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왔던 하늘로 돌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말을 썼습니다.

「나이살이」중에서

[사례 44] 에디가 생각날 때면 정말 울화가 치밀어 마음속으로 이렇게 소리칩니다.

“어떻게 그 녀석이 감히 그렇게 죽어 버릴 수 있어? 어떻게 그 녀석이 감히 아빠를 이렇게 슬프게 하냐고!”

에디는 아무 말도 없습니다. 에디는 이 세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장 슬플 때」중에서

[사례 45] 저 아래 연못이 보였습니다. 연못은 너무도 고요하고 너무도 쓸쓸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저렇겠구나. 연못 혼자 외로이. 나도 없이.’ 오리는 생각했습니다. 죽음은 이따금 생각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네가 죽으면 연못도 없어져. 너에게는 그래.”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46]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에게 배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이들이 슬퍼하며 말했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47] “그러지 마, 생명이 가는 길은 멈출 수 없어.”...(중략)

“영혼아, 멀리 날아가렴.”

「오래 슬퍼하지 마」중에서

[사례 48]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106년을 살고 돌아 가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길은 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49] "엄마, 보세요! 저기, 저 파란 작은 별 보이세요? 저 별이 리사예요. 별들 가운데 가장 예쁘죠?"

"그래, 그렇구나."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50] "프레드야, 이제 넌 동생이 없어진 거야. 너무 슬프겠다!"...(중략)

"그럼 다시는 조와 같이 놀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 네 마음속에서만 같이 놀 수 있지."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 까요?」중에서

[사례 51] 너무 조용해……. 누구랑 말을 한담? 엄마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엄만 안 계신걸.

「채마밭의 공주님」중에

[사례 52] "그러면 할아버지는 영원히 안 일어나요?" 내가 물었어요.

"그래, 영원히!" 엄마가 훌쩍거렸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53] “우리 할아버지한테 마지막 인사를 가자.”...(중략)
“할아버지가 계셔서 참 재미있었는데…….”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들은 죽음이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임을 인식하게 해준다. 우리가 아무리 바라고 기대하여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준다. 여기에서 우리는 죽음이란 다시는 볼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슬퍼하고 그리워해도 죽으면 볼 수 없다는 것, 이것은 죽음의 개념인 비가역성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비가역성은 일단 신체가 죽었을 경우, 마술이나 약, 음식, 물 기타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Smilansky, 1987).

3. ‘죽음’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죽음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선택을 하고 그 일은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산다. 하지만 그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픔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사례 54]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은 오리를 말끄러미 바라 보았습니다. 오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55] 이제 우리에게 배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56] 가끔 살아 있는 것들은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 대개는 곧 낫지만 너무 많이 다쳐서, 너무 많이 앓아서 더 이상 못 살고 죽기도 한단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중에서

[사례 57] "구름아, 저 정말 죽으려고 그래? 이렇게 안 먹으면 어떻게 해?"...(중략)

그러면서 차츰 현우는 구름이가 정말 병에 걸렸다는 것, 이제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슬픔아, 안녕?」중에서

[사례 58] 니콜라는 학교에 나온 뒤에도 병원에 자주 갔어요. 그러나 몸은 좋아지지 않고, 더욱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니콜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안녕, 니콜라」중에서

[사례 59] 할아버지는 오늘 나가서 놀 수 없단다. 우리 내일 아프리카로 가요. 할아버지가 선장이 돼 줄 수 있죠?

「우리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60] "그럼 다시는 조와 같이 놀 수 없는 거네요?"

"그렇지. 네가 조를 생각할 때, 네 마음속에서만 같이 놀 수 있지."...(중략)

"조야, 관 속에 네가 제일 좋아하던 자동차랑 책 넣었으니까 혼자 있다고 심심해하지 마. 우리가 여기 와서

매일매일 놀아 줄게. 넌 우리가 노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거야. 안녕, 사랑하는 내 동생, 조.”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사례 61] 빵은 빵은 누가 구웠니? 엄마가 엄마가 우리 엄마가. 아냐, 아냐, 아니야. 엄마는 벌써 죽었는걸....(중략) 아빠랑 마테는 딴 데서 살아야 한단 말예요! 내 어린 딸아, 그게 바로 엄마가 하지 못한 말이란다.

「채마밭 공주님」중에서

[사례 62] 마당 뒤에 할아버지 손수레가 있었어요. 할아버지랑 낙엽을 주워서 여기에 담았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못 하겠지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63] “잔치를 열고 싶구나.”...(중략)
“밥을 먹고 싶은 게 아니란다. 마을을 천천히 거닐면서 나무와, 꽃과, 하늘을 이 눈으로 보며 즐기고 싶구나……. 모든 것을 말이야.”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죽음이란 것은 살아있을 때 했던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 살아있는 상태의 반대의 개념으로 인식한다. 즉, 죽으면 어떠한 것에도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이다. 할아버지와 했던 것들을 할 수 없고 할아버지와의 다니던 곳을 보고 느끼면서 추억을 더듬어 볼 뿐 다시 해볼 수 없다는 것이 슬픔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추억이란 우리에게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연결 고리 같은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의 개념인 비기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 다시 할 수 없다는 것이 비기능성의 개념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비기능성은 일단 죽음을 맞이하면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모든 신체적 기능인 걷거나 먹는 행위, 보고, 듣고, 생각하는 등의 능력들이 중단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이다(정경숙, 2000).

4. '죽음'은 원인이 있다

'죽음은 원인이 있다'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아픔을 볼 수 있다. 아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친구의 아픔으로 친구를 볼 수 없다는 것, 친구가 고통스러워 한다는 것을 통해 친구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아픔뿐 아니라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는 여러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례 64] "이폴렌, 저건 나무의 눈물이란다. 나무가 우는 거야 아 마 무슨 일이 생긴 것 같구나."...(중략)
"이폴렌, 할머니가 돌아가셨단다."...(중략)
이폴렌은 끝없는 나무의 가장 오래된 뿌리 앞까지 갔어요. 그 뿌리는 '이 세상 나무들의 어머니'이었지요. 이폴린의 할머니, 이폴린 할머니의 할머니, 또 그 할머니의 할머니의 목소리를 말이지요.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65] "그럼 지금 나를 데리러 온 거야?"
"그동안 죽 나는 네 곁에 있었어. 만일을 대비해서."
"만일을 대비해서?"오리가 물었습니다.
"그래. 독감에 걸린다거나 사고가 난다거나…….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잖아."...(중략)

한 주 한 주 흐를수록 둘이 연못에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중략)

오리는 문득 추위를 느꼈습니다.

"추워. 나를 좀 따뜻하게 해 줄래?"오리가 말했습니다....(중략)

부드러운 눈이 하늘에서 나풀나풀 내렸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은 오리를 말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66] 리벡 할아버지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늘 그렇게 했지요....(중략)

"난 이제 갈 때가 된 것 같구나."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67]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만 사는 거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중에서

[사례 68] 그때 나무 사이를 날아다니는 지빠귀 두 마리가 보였어요. 그중 한 마리가 베란다 창문을 향해 곧장 날아갔어요. 꽝! 난 누가 죽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부리를 벌리고, 다리를 움찔했어요. 그러더니 잠시 후 숨을 거두었지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69] 구름이가 심장사상충이라는 고통스러운 병에 걸려다고 수의사 선생님이 말하셨어요....(중략)
안락사는 살아날 가망이 없는 동물에게 주사로 약물을 넣어서 죽게 하는 것이에요. 물론 현우는 고개를 가로 저었어요.

「슬픔아, 안녕?」중에서

[사례 70] 사실, 나 많이 아파. 의사 선생님들을 많이 봤어. 아주 아주 많이...(중략)
그러나 몸은 좋아지지 않고, 더욱 나빠졌어요. 어느 날 아침, 나는 니콜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안녕……. 잘가…….

「안녕, 니콜라」중에서

[사례 71] 내 친구 키미는 아빠도 엄마도 없다. 고베에 살 때, 큰 지진이 나서 돌아가셨다고 한다.

「어떤 느낌일까?」중에서

[사례 72] 너무 슬퍼서요. 위층에는 병든 할머니가 계셔요. 죽음은 할머니를 데리로 온 거지요. ...(중략)
죽음의 목소리가 들려왔지요.
"영혼아, 멀리 날아가렴."
아이들이 위층으로 뛰어 올라갔을 때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오래 슬퍼하지 마」중에서

[사례 73] 할아버지는 오를 나가서 놀 수가 없단다.

「우리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74] “그래, 할아버지는 연세가 아주 많으시니까 주무시면서도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천국에도 쉽게 가시겠지.”...(중략)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단다. 할아버지처럼 백년 넘게 사는 건 어려운 일이야.”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75] “리사는 오늘 유치원에 못 간단다.”

“어디가 아픈가요?”...(중략)

“어젯밤에 병원에 갔단다.”...(중략)

“엄마, 보세요! 저기, 저 파란 작은 별 보이세요? 저 별이 리사예요. 별들 가운데 가장 예쁘죠?”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76] 올빼미 의사 선생님이 말합니다.

“조가 너무 많이 아파서 나도 낫게 해 줄수가 없었어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사례 77] 여든 살 생신이 지나고부터 할아버지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 하지만 두 뺨은 어렸을 때처럼 다시 붉어졌지. 할아버지는 더 창백해져서 거의 투명 인간 같았어.

「할아버지의 붉은 뺨」중에서

[사례 78] "기운이 없구나. 오늘 아침은 침대에서 먹을까 보다."
"침대에서는 안 드시잖아요. 이불에 빵가루 흘리는 걸 싫어하시잖아요."
"기운이 없어."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사례 79]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중략)
"어, 이상하다! 아니야. 아마 공원에 계실 거야."...(중략)
"할아버지는 이제 여기 안 계신단다. 우릴 떠나셨어요."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마다 죽음의 원인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렇다. 죽음을 맞이할 때는 늙어서도, 아파서도, 불의의 사고로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의 개념을 또 하나 찾을 수 있었다. 그것은 죽음의 인과성이다. 인과성이란 죽음이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아는가에 대한 사고를 말한다.

5.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늙어간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늙어간다'는 우리 주변에 나이를 먹으면 죽음을 맞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통해 사람은 태어나 나이를 먹고 나이를 먹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것은 '자연의 이치'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설명될 수 있다.

[사례 80] 할머니는 여름 나뭇가지로 만든 요람에 실려 어둠의 기슭까지 옮겨졌어요....(중략)
할머니의 요람이 사라지고 나서야 이폴렌은 할머니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안녕……할머니.'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81]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함께 살아가며 기쁨을 나누고, 서로를 지켜 가려는 마음이 모든 의례 속에 담겨 있습니다.

「나이살이」중에서

[사례 82] 한 주 한 주 흐를수록 둘이 연못에 가는 일이 드물어졌습니다. 어딘가 풀 속에 앉아 있는 때가 많았습니다. 말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늘한 바람이 깃털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오리는 문득 추위를 느꼈습니다.
"추워. 나를 좀 따뜻하게 해줄래?" 오리가 말했습니다....(중략)
오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83] "얘야, 이리 오렴. 내가 맛있는 배 줄게."
리벡 할아버지는 늙어서 움직이지 못할 때까지 늘 그렇

게 했지요....(중략)

사흘 후 리벡 할아버지는 무덤에 묻혔어요.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84] 살아 있는 모든 것들처럼 사람도 수명이 있지. 사람은 육칠십 년을 산단다. 가끔 더 오래 살기도 하지. 그 동안 자라나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들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중에서

[사례 85]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단다. 할아버지처럼 백 년 넘게 사는 건 어려운 일이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느님이 고생했다고 할아버지를 데려가실 수도 있단다."...(중략)

할아버지는 어느 날 조용히 숨을 거두셨다.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86] 여든 살 생신이 지나고부터 할아버지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어. ...(중략)

이제 할아버지는 너무 창백해서 곁에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워....(중략)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할아버지의 붉은 뺨」중에서

[사례 87] "오늘은 할 일이 무척 많단다. 준비는 해야 해."

"무슨 준비를요?"

할머니 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

었지요. 손녀 돼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사례 88] 그러던 어느 날이었지. 서늘한 기운이 슬그머니 옷깃을 파고들고, 구스타브손 아저씨네 벚나무는 노랗게 물들고 있을 때, 베라가 헐레벌떡 달려왔어....(중략)

"이제 외할아버지한테 갈 수 있게 됐어!"...(중략)

"외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없는 거야. 금으로 만든 시계도, 박제된 새도, 파란 모자를 쓴 할머니 사진도 없었어. 침대는 깔끔하게 정리되었고, 방에서는 세제 냄새가 폴폴 풍기고 있었지.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우리는 죽음을 당연하다는 것으로 말하고 있다. 할아버지의 죽음은 우리에게 슬픔보다는 당연함으로 다가선다. 할아버지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존재할 수 있었으며 할아버지의 죽음을 편안함으로 보여주면서 우리는 늙음의 죽음을 아름다운 죽음으로 인식할 수 있다. 여기에서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죽음의 노화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인생의 생물학적순서인 탄생, 성장, 늙음, 죽음의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다. Smilansky(1987)는 노화성에 대한 이해는 필연성과 인과성과도 연결된다고 하였다.

6.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우리가 죽으면 또 다른 세계가 있어서 우리는 다시 만날 수도 있고 또 그 세상에서 우리를 지켜볼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우리는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으로 죽은 자와의 고리를 놓지 않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움의 정서를 표현한다.

[사례 89] 하늘나라에서 개들은 자기가 좋은 만큼 오래오래 머무를 수 있어요. 영영 머무를 수도 있고요. 개들은 하늘나라에 옛 친구가 올 때까지 있을 거예요.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겠지요. 그 개들이 바로 천사 개들이랍니다.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중에서

[사례 90] 노엘은 죽음의 숲에 사는 마왕의 명령을 받고 그림자들을 데려가려고 온 거였죠....(중략)

산을 넘어가면 우리 같은 그림자들이 모여 사는 나라에 갈 수 있어.

「그림자 축제」중에서

[사례 91] 할머니는 잎새들 사이를 지나 하늘 위로 천천히 날아갔어요. 할머니 몸은 숨결처럼 가벼워 보였어요....(중략)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92] 그런데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중략)

엄마는 그렇게 먼 곳에 있지 않아!...(중략)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단다.

「나비엄마의 손길」중에서

[사례 93] 후손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섬깁니다. "보살펴 주신 은혜 고맙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 주십시오."
남아 있는 후손들은 마음을 모아 정성 어린 제사를 지냅니다.

「나이살이」중에서

[사례 94] 죽음은 까칫까칫 일어난 오리의 깃털을 쓰다듬어 매끄럽게 펴 주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강으로 오리를 안고 갔습니다. 죽음은 오리를 조심스레 물 위에 띄우고 살짝 밀었습니다. 죽음은 오랫동안 떠내려가는 오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오리가 보이지 않게 되자 죽음은 조금 슬펐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었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95] 애니는 바니가 하늘나라로 가서 다른 고양이들이랑 천사들이랑 크림과 참치 통조림을 먹고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바니가 땅에 묻혀 있다고 말했습니다....(중략)
우리는 하늘 나라에 대해 아는 게 없어서 바니가 정

말 하늘나라로 갔다고 말할 수가 없구나.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사례 96] 세월이 몇 년 더 흘러 무성해진 배나무 잎이 할아버지 무덤을 덮었어요. 황금빛 가을이 되자 배나무에는 맛 좋은 배가 주렁주렁 달렸어요. ...(중략)

배나무가 속삭였어요. “배 하나 줄까?” 소녀가 지나갈 때도 배나무가 속삭였어요. “이리 오렴. 내가 맛있는 배 줄게.”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97] 부디 편안히 잠들길. 우리도 언젠가 다시 만나리라. ...(중략)

이제 무덤 위에는 풀과 이끼가 자라고 꽃이 피리니, 모든 것이 평화롭다네.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98] 어느 날 아침, 나는 니콜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중략)

얼마 뒤 생일 선물로 망원경을 받았어요. 그날 밤,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 니콜라를 생각했어요.

「안녕, 니콜라」중에서

[사례 99] 내가 깜짝 놀라자, 할머니께서 내 얼굴을 빤히 보며 말씀하셨다.

"그래, 할아버지는 연세가 아주 많으시니까 주무시면서도 다른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천국에도 쉽게 가시겠지."...(중략)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하느님이 고생했다고 할아버지를 데려가실 수도 있단다."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100] "하늘나라에 파티가 열리나 봐. 아주 굉장한 사람을 맞이하는 파티일 거야!"...(중략)

"엄마, 보세요! 저기, 저 파란 작은 별 보이세요? 저 별이 리사예요. 벽들 가운데 가장 예쁘죠?"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101] 엄마는 죽었으니까 더 나빠요. 오. 얘야, 죽다니? 그건 그 사람을 보지도 못하고 목소리를 듣지도 못하는 사람한테만 쓰는 거야. 내 방과 채마밭을 잠그고 열쇠를 감추어 버렸으니 내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거야. 너한테 내 목소리를 들려줄 방법이 없었어. 영영 내 목소리를 내지 못할 줄 알았다.

「채마밭의 공주님」중에서

[사례 102] "할아버지? 작년에 돌아가셨잖니!" 그러면 할아버지가 소리치지.

"그래서 뭐? 내가 죽어서 너희들이 귀찮은 거라도 있냐!" 할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다시 이야기를 들려줘. 이야기 하나가 끝나면 또 하나를 들려주지.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뺨도 붉어져. 할아버지와 나는 무척 즐거워.

「할아버지의 붉은 뺨」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우리는 죽음 다음의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지게 된다. 죽은 후에 또 다른 세상에서 살아남은 가족에 대한 그리움과 걱정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죽음이란 산 자와 죽은 자의 이별이 아닌 또 다른 이어주는 공간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기에 주변을 떠나지 않고 지켜보고 이야기하고 보살피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여기에서 죽은 후의 세계, 사후세계에 대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 사후세계의 또 다른 표현인 영혼불멸을 보면, 영혼불멸(사후세계, 환생, 올바른 삶의 지향)이란 물리적인 신체의 죽음 이후에도 어떤 유형의 지속성이 여전히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새로운 신체로 환생한다거나 영혼으로 승천한다는 등, 영혼불멸은 사후세계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다(정경숙, 2000; 정대련·이현주, 2003).

이를 종합해보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은 본 연구에서 죽음의 주요개념으로 나눈 6가지 요소가 다양하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고, 한 권의 그림책에 여러 가지 개념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통해서 유아들에게 죽음개념을 설명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유아들의 그림책에서 죽음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만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 여러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한 것으로도 죽음의 개념은 상호 관련성이 있고 뚜렷한 구별이 어렵다는 선행연구들(Gorman, 1983; Smilansky, 1987)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분석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주요개념 범주

번호	도서명	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인과성	노화성	사후세계
1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						○
2	그림자 축제		○				○
3	끝없는 나무	○	○		○	○	○
4	나비엄마의 손길						○
5	나이살이	○	○			○	○
6	내가 가장 슬플 때		○	○			
7	내가 함께 있을 게	○	○		○	○	○
8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가지 좋은 일				○		○
9	배나무 할아버지	○	○	○		○	○
10	살아있는 모든 것은	○		○	○	○	
11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			○		○
12	슬픔아, 안녕?	○		○	○		
13	안녕, 니콜라!			○	○		○
14	어떤 느낌일까?				○		
15	오래 슬퍼하지마	○			○		
16	우리 할아버지	○		○	○		
17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	○	○		○	○	○
18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	○		○		○
19	채마밭의 공주님	○	○	○	○		
20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	○			○
21	할아버지의 붉은 뺨	○	○	○			
22	저 파란별이 리사예요	○			○	○	○
23	할머니가 남긴 선물	○		○	○	○	
24	휘파람 할아버지	○	○		○	○	

C.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본 장에서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를 밝히고자 한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은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은 무서운 것도, 남의 일도 아니며 유아가 경험할 수 있는 일상이라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죽음을 맞이한 대상과 죽음의 개념들을 통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시간', '자꾸만 떠오르는 추억의 시간',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간', '또 다른 삶의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1.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 불안함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불안함'이다. 유아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주변의 모든 것들이 떠난다는 것을 말한다. 유아는 죽음을 자각하기 때문에 혼란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다.

[사례 103] "큰 일이다! 모두에게 알려야 겠어. 잘못했다간 그림자가 모두 없어질지도 몰라!"...(중략)
"큰일이야! 죽음의 숲으로 가려는 거야. 그곳으로 가면은 다시는 돌아올수가 없어!"

「그림자 축제」중에서

[사례 104] 다음 날 아침, 이폴렌은 자기만 아는 비밀장소에 숨었어요. 할머니를 사랑하던 마음에 커다란 구멍이 생

겼거든요. 너무나 슬프고 슬픈 이폴렌은 몸 전체가 눈물로 변해 버렸어요.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105] 우리 집 고양이 바니가 죽었어요. 나는 너무 슬펐어요. 텔레비전도 보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치킨도, 초콜릿 푸딩도 먹지 않고 울기만 했습니다.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사례 106] 난 두려움도 완전히 잊었어요. 지빠귀는 어찌나 새까맣던지 빛이 나 정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107] "그래도 구름이를 다시 볼 수 없어서 슬퍼요."

"왜 안 그렇겠니? 나도 그런데…."

현우는 엄마에게 기대어 펑펑 울었어요. 엄마의 손수건이 흠뻑 젖을 정도로요.

「슬픔아, 안녕?」중에서

[사례 108] 아이들은 조금도 겁나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서요....(중략)

"마음아 울어라,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말거라."

죽음은 계단 아래로 사라졌지요.

「오래 슬퍼하지마」중에서

[사례 109] 어제 배니가 리사를 놀렸거든요....(중략)

유치원에 가면서 배니는 자꾸만 콧등이 시큰거렸거

든요. 리사가 아픈 것이 자기 때문인 것 같았지요. 유치원에서 배니는 그만 울음을 터트렸어요! ...(중략)

“리사는 오늘 못 와. 많이 아프단 말이야!”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110] ‘왜 다들 울고 있는 거야?’...(중략)

“프레드야, 이제 넌 동생이 없어진 거야. 너무 슬프겠다!”...(중략)

프레드는 밤낮으로 조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렇지만 프레드는 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프레드는 모두에게 화가 나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가요?」중에서

[사례 111] “엄마, 엄마!” 이네스가 깜짝 놀라 엄마를 불렀지만, 엄마는 펑펑 울기만 했어요....(중략)

나는 무서웠어요. 괜히 무서워서 텔레비전도 껐어요....(중략)

대체 무슨 일인지 모르겠어요. 어느새 내 눈도 따끔거리고 촉촉해졌어요.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엄마 아빠는 무척 슬프단다.”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112] 할머니 돼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가 없었어요. 손녀 돼지는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가

슴 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중략)
손녀 돼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
“자, 자, 울지 않기다.”
“안 울게요.”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유아들은 떠남에 대한 불안함을 보여 준다. 사랑하지만 왜 떠나보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모르는 유아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고요하고 쓸쓸하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한 표현은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의 정서를 대신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의 죽음을 맞이해야 하는 당사자일 경우는 외롭고 쓸쓸하다는 것으로 죽음에 대한 표현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에서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당사자와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의 정서가 다 똑같이 불안하고 두렵고 슬프게 나타나 있다. 우리는 죽음을 생각할 때 맨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아마도 두려움, 슬픔, 혼란 등이 아닐까 한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은 '불안함'으로 표현하고 있다. 죽음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미지의 죽음이라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있다.

2.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시간: 무감각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무감각’이다. 유아가 맞이한 죽음에서 유아는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보고 아무런 것도 하기 싫은 감정을 느끼게 된다. 유아는 죽음을 통해 기진맥진, 자포자기 같은 정서적 불안과 행동적 무반응을 같이 보이기도 한다.

[사례 113] 이폴렌은 너무 무서워서 순식간에 돌로 변해 버렸지요.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114] 내 방에 틀어박혀 울기만 했습니다.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사례 115] 너무 슬퍼서 정말 아무 것도 할 수 없어요. 프레드는 놀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 숲 속을 쏘다녀요. 프레드는 밤낮으로 조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중략)

그렇지만 프레드는 울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화가 나요. 프레드는 모두에게 화가 내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떠남에 대한 무감각, 무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감각적인 반응만 있는 것이 아닌 무반응과 무감각적인 것도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책에서는 죽음을 맞이하면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어 '멍'한 상태에서 죽음에 대한 슬픔을 표현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죽음이라는 것을 직면하는 사람들은 가족이란 고리로 연결되어 있어서 항상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그리움만 나타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움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며 아무 생각도 할 수 없는 무감각의 상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죽음의 표현인 '무감각'이다. 슬프고 두려움을 느낀 죽음을 유아의 입장에서 보면 죽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느낄 수 없는 무감각인 것이다. 슬퍼해야 하는지, 두려워해야 하는지, 아파해야 하는지, 무엇을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지, 모르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는 유아들의 혼

란을 알 수 있다.

3. 자꾸만 떠오르는 추억의 시간: 그리움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그리움'이다. 유아에게 죽음은 그리움이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떠나면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는 떠나간 사람이 남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떠난 사람도 떠나간 사람도 그리움을 머금고 있다는 것이다.

[사례 116] 그런데 아빠! 엄마는 어디 있어요?...(중략)

사랑하는 아들아! 엄마는 …… 소중한 사람이란다! 너의 엄마고, 아빠의 아니지. 엄마는 늘 우리 곁에 있단다.

「나비엄마의 손길」중에서

[사례 117] 바니는 용감했어요. 영리하고, 재미있고, 깨끗했어요. 또 꼭 안아 주고 싶을 만큼 귀여웠고, 잘생겼고, 새를 딱 한 번밖에 안 잡아먹었어요. 내 귀에 대고 기분 좋은 소리로 '야옹'했어요. 내 배위에서 잠이 들면 배가 따뜻해졌어요. 엄마는 모두 좋은 기억들이구나, 하고 말했어요.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

[사례 118]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이제 우리에게 배를 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이들이 슬퍼하며 말했지만 그럿은 맞는 말이 아니었어요.

「배나무 할아버지」중에서

[사례 119] 학교에 가면 니콜라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중략)

그날 밤,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 니콜라를 생각했어요.

「안녕, 니콜라」중에서

[사례 120] 창문을 열 때면 할머니 생각이 났지요.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을 때마다 할머니가 옆에 와 계신 것 같았어요.

「오래 슬퍼하지마」중에서

[사례 121]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중략)

“엄마, 보세요! 저기, 저 파란 작은 별 보이세요? 저 별이 리사예요. 별들 가운데 가장 예쁘죠?”

“그래, 그렇구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답니다.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122] 장례식이 끝나고도 며칠 동안 아빠랑 엄마는 계속 집에 있습니다....(중략)

프레드는 밤낮으로 조의 생각을 하면서 눈물을 흘려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 까요?」중에서

[사례 123] 내가 엄마 채마밭에서 살기로 한 걸 꿈에도 모를걸? 여기도 옛날 같지 않아. 엄마가 살아 있었을 때랑은 달라....(중략)

엄마가 있었으면 좋겠다!

「채마밭 공주님」중에서

[사례 124] 할아버지랑 낙엽을 주워서 여기에 담았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못 하겠지요?...(중략)

우리 셋은 기운이 쭉 빠졌어요....(중략)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낙엽을 주워 여기에 담아 볼까?"

여기서 한 주먹, 저기서 한 주먹, 낙엽이 금세 쌓였어요. 우리는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꼭 여기 있는 것 같아요....(중략)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125] "할아버지가 계셔서 참 재미있었는데……."

그리로 차가 떠나갔어....(중략)

우리는 손을 흔들어 할아버지를 배웅했지.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들에서는 떠남에 대한 그리움, 반성, 후회를 보여주고 있다. 죽음은

남아 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지배적이다. 대부분 죽음의 표현에서 남아 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에 대해 그리움과 후회가 있다. 그것은 죽은 사람에 대해 '더 잘할 걸, 조금 더' 이런 마음이 나타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그리움으로는 떠난 자도 남은 자도 모두 그리워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는 이별을 아쉬워하고 그리워하고 있었다. 남은 자도 떠난 자도 그리움으로 삶과 죽음을 극복하려고 하고 있었다.

4.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 타협함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의미는 '타협함'이다. 타협함이란 죽음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죽음이란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위한 과도기적인 단계이다. 죽었다는 건 알지만 수긍하기 싫은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사례 126] 슬픈 눈물운 끝없는 나무를 가로지르며 아래로 떨어졌지요. 이폴렌은 부드러운 나뭇잎들 사이로 한참을 떨어졌어요. ...(중략)
"커다란 진주는 씨앗이야. 커다란 진주는 나무의 씨앗이란다."...(중략)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 따윈 무섭지 않아!"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127] "나 아직 죽지 않았어!"...(중략)
"만약에 내가 죽었다면?"...(중략)
"다른 오리들이 그랬어. 죽으면 천사가 되어 구름에 앉아 땅을 내려다 볼 수 있다고."...(중략)

“땅속 저 밑에는 나쁜 오리를 불로 굽는 지옥이 있다고도 했어.”

오리는 문득 추위를 느꼈습니다.

“추워. 나를 좀 따뜻하게 해 줄래?”...(중략)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죽음은 오리를 말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오리는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128] 나는 아주 조금만 도와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바니가 죽었기 때문에 뒷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했습니다. 아빠가 말했습니다. 나라고 이 일이 좋겠니? 나도 슬프단다. 아빠는 내일은 그렇게 슬픈 기분이 들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중략)

바니는 땅에 묻혀 있어요. 하지만 바니는 꽃을 키울 거예요.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사례 129] 죽음은 휘파람 소리를 내며 무겁게 숨을 쉬지요. 무시무시해요. 하지만 아이들은 조금도 겁나지 않았어요. 너무 슬퍼서요....(중략)

“우리는 할머니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런데 할머니가 왜 돌아가셔야 하지요?”...(중략)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란다. 얘들아. 죽음이 없다면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니?”...(중략)

“그러지 마, 생명이 가는 길은 멈출 수가 없어.”

「오래 슬퍼하지 마」중에서

[사례 130] “별들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더니, 모두 다르게 생겼더라. 모양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말이야. 나는 저기, 저기 있는 파란 작은 별이 가장 좋아. 저 별의 이름이 뭘까?”...(중략)

그 날 밤, 배니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중략)

“하늘나라에 파티가 열리나봐. 아주 굉장한 사람을 맞이하는 파티일 거야!”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131] 다음 날 아침에도 할머니 돼지는 여전히 기운이 없었지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중략)

할머니는 잠시 동안 눈만 지그시 감고 있었습니다.그러다가 할머니는 가방과 모자를 챙겼습니다....(중략)

손녀 돼지는 웃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입술이 떨려 왔어요.

“자, 자, 울지 않기다.”

“안 울게요.”

손녀 돼지는 약속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나 지키기 힘든 약속이었어요.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위 사례들에서는 떠남에 대한 두려움과 인정하기전의 망설임이 있다. 여기

에서는 죽음을 받아들이기는 두렵고 거부할 수는 없는 그런 중간의 상태를 말한다. 우리는 여기에서 '타협함'이라는 단어로 이쪽과 저쪽의 중간 단계를 설명하고 있었다. 죽음에 대한 유아들의 반응에서 죽음을 인정하기 전의 복잡한 상태라고 보면 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망설임에서 자기의 판단으로 무엇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의 단계가 온다. 그것이 인정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죽음의 의미는 '타협함'이다.

5.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간: 인정함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의미는 '인정함'이다. 인정함이라는 것은 사람은 아프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또,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런 여러 상황들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사례 132] 사람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본래 왔던 하늘로 편안하게 되돌아갈 수 있도록 살아 있는 사람들은 정성을 다합니다....(중략)
후손들은 돌아가신 조상님을 오랫동안 잊지 않고 섬깁니다.

「나이살이」중에서

[사례 133] "네가 죽으면 어떻게 연못도 없어져. 적어도 너에게는 그래." "내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중략)

“그 정도야 알지.”...(중략)

“네 말을 들으니 위로가 된다. 그렇다면 안쓰럽게 여기지 않아도 되겠네. 만약…….”

“그래, 만약 네가 죽으면…….”

「내가 함께 있을게」중에서

[사례 134]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

「살아 있는 모든 것은」중에서

[사례 135] 바니는 땅에 묻혔어요. 하지만 바니는 꽃을 키울 거예요. 엄마, 그럼 바니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 맞지요?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사례 136] “불쌍한 지빠귀야,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해 줄게.”에스테르가 말했어요.

“그래, 그럼 다시 기분이 좋아질 거야.” 푸테가 말했어요. 난 두려움도 완전히 잊었어요. 지빠귀는 어찌나 새까맣던지 빛이 날 정도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중에서

[사례 137] “심술부렸던 것 미안해. 그리고 너랑 참 재미있었다. 잊지않을게.” 현우는 구름이 등을 한 번 쓰다듬고는 진찰실을 나왔어요....(중략)

울음이 좀 가진 것을 보고 수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어요. 마음의 준비가 되었느냐고요. 현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중략)

“잘 가, 구름아.”

「슬픔아, 안녕?」중에서

[사례 138] 어느 날 아침, 나는 니콜라에게 마지막 인사를 해야 했어요. 안녕! 안녕……. 잘가……. 학교에 가면 니콜라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중략)

그리고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 니콜라를 생각했어요.

「안녕, 니콜라」중에서

[사례 139] “틀림없이 무척 쓸쓸하겠지?”

키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그렇지도 않아.”

정말일까?

“정말이야.”

정말 그럴까?

「어떤 느낌일까?」중에서

[사례 140] “그러지 마, 생명이 가는 길은 멈출 수 없어.”...(중략)

“영혼아, 멀리 날아가렴.”...(중략)

“마음아 울어라,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말거라.”

「오래 슬퍼하지마」중에서

[사례 141] 그렇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구나! 할아버지는 정말 멋진 분이구나. 아주 긴 세월을 사셨고, 훌륭한 일도 많이 하셨구나.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142] "보고 싶었어. 너는 내 가장 친한 친구잖아."

"나도 너무 보고 싶었어. 네 생각도 많이 했어."...(중략)

"배니야, 이제 옛날 같지는 않을 거야. 나 얼마 못 산대."

리사가 고개를 떨궜어요. 배니는 리사의 손을 꼭 잡았지요.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143] 나날이 아빠랑 엄마는 조금씩 기분이 나아집니다. 프레드도 조금씩 나아지고요. 프레드는 아기 돼지랑 다시 놀고 싶어요. 더는 화도 나지 않아요....(중략)

고슴도치 할아버지는 프레드와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프레드와 친구들이 함께 웃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서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사례 144] 우리 아기 마테, 엄마 말 들리니? 들려요. 하지만 안 들을래요....(중략)

하나! ……하나. 자니? 안 자요. 하지만 안 들을래요....(중략)

하나의 뺨은 눈물 자국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같은 일이지요. 늘 해왔던 일 말입니다....(중략)

“그래, 내 딸아! 네가 없으면 내가 어쩔 뻔했니!”

아니군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아주 살며시 웃었습니다.

「채마밭의 공주님」중에서

[사례 145] 할아버지랑 낙엽을 주워서 여기에 담았었는데, 이제는 영원히 못 하겠지요?

“나 놀기 싫어?”...(중략)

우리 셋은 기운이 쭉 빠졌어요. 하지만 샤를이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우리도 할아버지처럼 낙엽을 주워 여기에 담아 볼까?”...(중략)

우리는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가 꼭 여기 있는 것 같아요....(중략)

시간이 흘러 새싹들이 파릇파릇한 봄이 왔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자주 생각했지만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했던 재미난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었지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146] “오늘 밤에는 제가 할머니 침대로 들어가 꼭 껴안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돼요?”
“그럼, 되고 말고.”...(중략)
손녀는 두 팔로 할머니를 살며시 안았습니다.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는 서로 아침까지 꼬옥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마지막으로 말입니다.
「할머니가 남긴 선물」중에서

위 사례들에서 죽음은 떠남에 대한 인정함을 나타내고 있었다. 여기에서는 죽음에 대한 여러 원인이 나타났다. 죽음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도, 아픔으로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죽음의 인과성과 노화성, 필연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우리는 죽음에 대한 개념 뿐 아니라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도 볼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에서 점점 죽음에 대한 이해와 인정으로 죽음을 수용해 가고 있었다. 죽음의 ‘인정함’을 의미한다.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이다.

6. 또 다른 삶의 시간: 이겨냄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의미는 ‘이겨냄’이다. 이겨냄이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아픔을 인정하는 것이다. 죽음을 처음 맞이할 때는 두려워했다. 하지만 죽음의 대상을 그리워하고 죽음에 대한 타협과 죽음에 대한 인정을 통해 죽음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이겨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을 통해 죽음을 이겨내고 있었다. 죽음을 이겨내는 방법은 자기 스스로 죽음을 인정하는 방법도 있었고, 주변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방법도 있었다. 우리는 어려움을 이겨내는 방법을 통해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삶의 모습도 볼 수 있었다.

[사례 147] “나도 마찬가지야, 나도 너 따윈 무섭지 않아!”...(중략)

이폴렌은 나무 뿌리 사이를 기어올라 집으로 향 했어요....(중략)

집 주위에는 여느 때처럼 잎사귀들이 종알거리고 있었지요....(중략)

그리고 이폴렌이 가까이 오자 꼬옥 안아 주었지요.

「끝없는 나무」중에서

[사례 148] 그러다 문득 무언가를 바라보기도 합니다. 창밖을 내다보는 사람들을 ……, 크레인을, 사람을 가득 태우고 지나가는 리차를.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봅니다. 빗속을 걸어가는 나의 어머니를 ……, 와하하, 이히히, 깔깔깔 웃어 대며 거리를 지나가는 에디를. 그리고 촛불. 그래요, 촛불은 꼭 있어야겠죠.

「내가 가장 슬플 때」중에서

[사례 149] “흙은 모든 것을 바꾸어 준단다. 흙에서는 모든 것이 변하지.”

“바니도 변할까요?”

“그럼, 바니도 흙이 된단다.”

“바니가 꽃과 잎을 키워 주는 거예요”

“그럴 거다. 꽃도 피게 하고, 이 나무도 자라게

하고, 그리고 풀도 자라게 하지. 얘야, 그렇게 되면 바니가 아주 멋진 일을 하는 셈이겠지?”

“바니는 땅에 묻혀 있어요. 하지만 바니는 꽃을 키울 거예요. 엄마, 그럼 바니가 아주 좋은 일을 하는 거 맞지요?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중에서

[사례 150] “구름이는 우리 집에 온 손님이었잖니. 잘 지내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자.”

“그래도 구름이를 다시 볼 수 없어서 슬퍼요.”

“왜 안 그렇겠니? 나도 그런데….”...(중략)

“잘 가, 구름아.

「슬픔아, 안녕?」중에서

[사례 151] 학교에 가면 니콜라가 아주 많이 보고 싶어요. 얼마 뒤 생일 선물로 망원경을 받았어요. 그날 밤, 망원경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그리고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 니콜라를 생각했어요.

「안녕, 니콜라!」중에서

[사례 152]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신 뒤였어요. 침대 발치에 서 있던 죽음이 아이들을 바라보았어요.“마음아 울어라,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말거라.” 죽음은 계단으로 사라졌지요....(중략)

바람이 얼굴을 쓰다듬을 때마다 할머니가 옆에 와 계신 것 같았어요.

「오래 슬퍼하지 마」중에서

[사례 153]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할아버지는 106년 살고 돌아가셨다. 그러나 할아버지가 살아오신 길을 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계속 이어지고 있다. 나는 지금 생명의 끈 위에 서 있다. 할아버지의 생명이 나에게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중에서

[사례 154] 배니의 엄마가 방으로 들어왔어요. 엄마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그러고는 배니를 꼭 껴안았지요.

"엄마, 보세요! 저기, 저 파란 작은 별 보이세요? 저 별이 리사예요. 별들 가운데 가장 예쁘죠?"

"그래, 그렇구나."

엄마는 눈물을 흘리면서 웃고 있었답니다.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중에서

[사례 155] 동물 친구들은 토끼 가족을 도와 주고 싶어해요. 요리 잘하는 아빠 돼지가 말합니다."언제든지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저녁을 먹어요." 프레드네 가족은 돼지 가족에게 갔지만 별로 배가 고프지 않아요. 그래도 친구들과 같이 있는 것이 좋아요. 그것이 도움이 되니까요....(중략)

고슴도치 할아버지는 프레드와 친구들이 노는

것을 바라보면서 행복해합니다. 프레드와 친구들이 함께 웃는 소리를 다시 듣게 되어서요. 그 소리는 고슴도치 할아버지가 오랫도안, 아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바로 그 웃음소리거든요.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중에서

[사례 156]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야. 아무도 날 어쩌지 못해! 마테도! 아빠도! 엄마 목소리 없이도 난 잘 살 수 있어....(중략)

이제는 숨을 곳이 없어졌습니다. 예전처럼 다시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여전히 같은 일이지요. 늘 해 왔던 일 말입니다....(중략)

아니군요. 이제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하나는 살며시 웃었습니다. 또 도망가고 싶으면 마당 건너에 있는 노란 돌집으로 다시 가면 될 테지요.

「채마밭의 공주님」중에서

[사례 157] 시간이 흘러 새싹들이 파릇파릇한 봄이 왔어요. 우리는 할아버지를 자주 생각했지만 슬퍼하지는 않았어요. 할아버지가 했던 재미난 이야기를 떠올리며 웃었지요....(중략)

이야, 장미 나무가 이만큼 자랐어요. 벌써 예쁜 꽃망울이 두 개나 조랑조랑 맺혀 있어요!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중에서

[사례 158] “외할아버지, 약속대로 휘파람을 불어 드릴게요.

이제야 들려 드려요.” 베라의 휘파람 소리가 온 교회에 울려 퍼졌지....(중략)
우리는 할아버지를 배웅했지. 내가 물었어
“이제 뭐 할까?”
그러니까 베라가 그러더라.
“우리 연 날리자! 오늘은 바람이 불잖아!”

「휘파람 할아버지」중에서

위 사례들에서는 떠남에 대한 이겨냄, 죽음에 대한 이겨냄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통해 죽음은 유아들에게 두려움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죽음을 이겨낼 때는 자기의 의지와 함께 주변 여러 사람의 도움으로 이겨낼 수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우리는 죽음을 이겨내는 긍정적인 모습을 배울 수 있었다. 여기에서 죽음의 의미는 ‘이겨냄’이다.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죽음을 이해하기위한 유아들을 모습을 통해 죽음은 유아에게 별개의 것이 아닌 삶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다. 유아의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분석결과를 <표 3>에 제시하였다.

<표 3>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번호	도서명	불안 (슬픔, 부정)	고립 (무반응, 무감각)	그리움 (후회, 안타까움)	타협 (망설임)	인정 (수용함)	극복 (죽음에 대한 이해)
1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						
2	그림자 축제	○					
3	끝없는 나무	○	○		○		○
4	나비엄마의 손길			○			
5	나이살이					○	
6	내가 가장 슬플 때						○
7	내가 함께 있을게				○	○	
8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가지 좋은 일	○	○	○	○	○	○
9	배나무 할아버지			○			
10	살아있는 모든 것은					○	
11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				○	
12	슬픔아, 안녕?	○				○	○
13	안녕, 니콜라!			○		○	○
14	어떤 느낌일까?					○	
15	오래 슬퍼하지마	○		○	○	○	○
16	우리 할아버지						
17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					○	○
18	저 파란별이 리사예요	○		○	○	○	○
19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	○	○		○	○
20	채마밭의 공주님					○	
21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		○		○	○
22	할아버지의 붉은 뺨						
23	할머니가 남긴 선물	○		○	○	○	○
24	휘파람 할아버지			○			○

Ⅴ. 논의 및 제언

A. 논의 및 결론

유아들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있어 죽음에 대한 교육은 점차적으로 그 가치를 더해 가고 있다. 본 연구는 유아용 그림책에서 죽음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대상과 죽음의 개념,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용 분석적 연구방법을 통해 밝히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을 통해 죽음의 개념을 인식하고 죽음의 의미를 도출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1.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은 조부모, 부모, 형제·자매, 친구, 애완동물, 자식, 친구 부모, 자신과 타인의 죽음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는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것임을 말하고 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이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면 주변의 모든 것들을 통해 죽음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의 모습은 주변의 모든 상황을 통해 죽음은 먼 곳의 상황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대상이 갖는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나이가 들면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신세니·조희숙(2009)은 유아에게 조부모는 부모의 대리자이며 소외된 이들의 대변인이고 인생주기의 선 경험자, 지혜자, 생명의 원천자라고

하였다. 이처럼 유아에게 조부모는 커다란 의미가 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조부모는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 김양남(1993)은 7세-12세의 유아들은 죽음이 비가역적이고 영구적이며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고 하였다. 이 시기의 유아들은 죽음의 원인을 사고나 도구에 의해 발생되는 죽음의 외적요인과 늙음과 병과 같은 죽음의 내적요인을 구별한다고 하였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조부모의 죽음을 통해 누구나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가 필요함을 시사해 주기도 한다.

둘째, 부모의 죽음을 통해 남은 자의 슬픔과 떠난 자의 슬픔, 그리고 그리움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는 유아에게 하나의 성과 같은 존재이다. 부모의 죽음은 성인도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서 부모에 대한 죽음을 표현한 것은 우리 삶 속에서 피하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다. 부모의 죽음으로 남아 있는 가족의 또 다른 삶의 모습과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통해 죽음이라는 것을 재해석해야 할 것이다. Kiefer(1995)는 그림책은 유아가 자신의 주변세계와 이웃들에 대해 이해하도록 돕는 매체이며 주인공을 통해 지식을 구하고, 간접경험을 하게 되며, 주인공과의 동일시를 통해 감정은 느낀다고 하였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은 유아들에게 간접경험을 제공해주는 매체라는 그림책의 가치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셋째, 형제·자매의 죽음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되새길 수 있다. 죽음은 순서적인 것이 아닌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정경숙, 2000). 이것은 어떠한 존재도 죽음으로부터 도망칠 수 없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죽음은 모든 생명체가 거쳐야 하는 것임을 인식하게 될 때, 유아들은 죽음을 더 잘 이해 할 수 있을 것이다(양진희, 2006; 정경숙, 1996). 형제·자매의 죽음을 통해 유아는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가정뿐 아니라 교육기관에서도 유아들에게 형제·자매의

소중함을 알기위해 그림, 사진을 붙이거나 편지쓰기 등 형제·자매의 우애를 기를 수 있는 교육적 환경도 필요할 것이다.

넷째, 친구의 죽음을 통해 죽으면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모든 죽음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친구는 형제·자매처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수경·정경숙·송주연(2008)의 연구처럼 유아에게 친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할 수 있는 친구에 대한 교구나 친구에 대한 관심 등 친구에 대한 영역별 교구를 준비해주는 교육적 환경도 필요할 것이다.

다섯째, 애완동물의 죽음으로 죽음이라는 것은 책임감이 필요하며 친구의 부모의 죽음을 통해 친구의 정서를 배울 수도 있었다. 유아에게 애완동물은 친구이며 가족이상의 존재일 것이다. 방수동(2006)은 미국에서는 죽음교육중 하나의 방법으로 애완동물의 죽음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서로의 느낌과 생각을 나눈다고 하였다. 한은주(2009)도 죽음교육은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교육으로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정보적 개념을 제공해 주고, 유아들이 죽음에 대해 자신의 느낌을 자유로이 표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고 하였다. 유아에게 있어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한 Smilansky(1987)의 연구처럼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해 준다고 볼 수 있다.

여섯째,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아빠를 통해 우리는 죽음은 막을 수 없는 것이며, 죽음을 맞이하는 데는 순서가 없으며, 살아남은 자는 죽음을 이겨내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독일의 죽음교육내용에는 생명의 위협으로부터 적절한 주의와 노력으로 피할 수 있는 방법과 불가피한 죽음, 회피할 수 있는 죽음 등 죽음에 대한 여러 형태를 다룬다고 한다(고영철, 2004). 자식의 죽음이란 유아에게 생소할 수도 있다. 하지만 유아에게 죽음의 여러 형태가 있다는 것을 알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자식의 죽음을 경험한 아빠의 모습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과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을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친구부모의 죽음을 통해 부모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다. 죽음은 경

험해 볼 수 없는 것이다. Kane(1979)은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객관적 원인을 이해한다면 유아가 죽음에 대한 심리적, 정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부모의 죽음을 이해한 친구의 모습을 통해 유아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구체적 조작기에 속하는 유아 대다수가 죽음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이해한다는 김양남(1993), 장연집(1998)의 연구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여덟째, 자신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의 죽음에 대한 생각과 남아 있는 사람에 대한 배려도 볼 수 있었다. 죽음은 지극히 자연적이며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 문영석(2005)은 죽음은 자연적인 순환의 한 부분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유족의 고통과 슬픔은 정상적인 반응이며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리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과 남은 가족이 서로 똑같은 치유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교육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지속적이고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메리명희(2009)의 연구처럼 우리는 유아에게 죽음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죽음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아홉째, 가족이나 친척의 죽음이 아닌 타인의 죽음을 많이 경험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 유아는 죽음에 대한 간접경험을 할 수 있다. 현은자·김세희(2010)는 그림책을 통한 간접경험 제공은 어린이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확장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그림책을 통하여 자신의 경험을 재확인하며, 현실 생활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갖게 된다고 하였다. 이렇듯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는 매체로 그림책의 가치를 시사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는 죽음의 다양한 모습과 유아들에게 죽음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죽음이 표현되어 있었다. Gorden(1979)은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가능한 빨리 이해시키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서현아(1998)는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바른 이해를 시키는 것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잘못

된 인식, 어른에 대한 불신, 죽음에 대한 공포·불안을 없애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였다. 우리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을 통한 다양한 죽음표현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2.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개념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의 모습은 다양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 죽음의 모습을 통해 죽음의 개념을 도출할 수 있었다. 그것의 범주는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 '죽음은 다시는 볼 수 없다', '죽음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 '죽음은 원인이 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늙어간다',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 이었다.

첫째, '우리는 언젠가는 이별해야 한다'는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떠나 인간은 죽는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인간은 누구나 한 번은 죽는다는 것을 말한다. Nagy(1948)는 유아들은 죽음에 대한 보편적인 개념을 획득하기 전에는 죽음을 '덜 살아 있는 상태'로 인지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유아들이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죽음에 대해 인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하고, 미국의 죽음교육처럼 생명의 탄생, 성장, 죽음에 대한 설명이나 식물의 씨, 낙엽의 관찰 등 자연의 순환을 가르치는 구체적인 교육학습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둘째, '죽음은 다시 볼 수 없다'는 인간은 누구나 만나면 헤어진다는 것, 하지만 그 헤어짐이 가족이라면 많은 슬픔을 느끼게 될 것이다. 헤어지면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 죽음이라는 것은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보고 싶으면 언제나 볼 수 있다는 것,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다는 것의 의미를 말해주고 있다. Smilansky(1987)는 일단 신체가 죽었을 경우, 어떠한 수단을 통해서도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해는 죽은 사람이나 생물이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함으로써 유아들이 죽은 사람이나 동물에 대해서 빨리 포기하고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맥락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조메리명희(2009)의 연구에서 죽음교육의 목적은 죽음에 몰두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수성을 조장하는 것. 즉, 삶을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유아에게 죽음을 이해시키는 것, 이것은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셋째, '죽음은 하고 싶은 것도 못한다'는 우리는 무엇을 할 때 선택을 하고 그 일을 하면서 즐거움과 행복을 느끼며 산다. 하지만 그 일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슬픔을 주는지 알 수 있다. 죽음은 신체의 모든 기능, 즉, 밥 먹고, 숨 쉬고, 움직이고, 성장하고,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기능이 정지되는 것이다. Gorman(1983)은 비가역성과 비기능성을 결합해서 사용하기도 한다고 하였다. 이렇게 죽음의 주요개념은 상호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현아(1998)는 죽음 이해 수준이 연령에 따라 증가함을 밝혔다. 또 주요개념의 형성 수준에 있어서 5세~7세에 비가역성 개념이 가장 높은 수준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이렇게 죽음에 대한 인식과 태도는 연령과 인지적 발달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였다(김남주, 1984; 정경숙, 1985). 이것은 연령에 증가함에 따라 죽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의 이해에 대한 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는 것처럼 죽음에 대한 교육에 있어서 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해야 할 것이다. 유아에게 죽음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유아의 개인차를 인정하며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죽음은 원인이 있다'는 우리는 주변에서 많은 아픔을 볼 수 있다. 아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친구의 아픔으로 친구를 볼 수 없다는 것, 숨을 쉬고, 듣고, 느끼고, 보고, 생각하는 기능이 정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죽음의 원인을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에서 찾게 된다는 Kane(1979)의 연구는 유아들이 죽음은 원인이 있다는 것을 인지해 간다는 것이다. 장혜순

(2007)은 유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문학적 접근을 통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전방실(2001)은 유아자신이 직면한 문제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자신과 비슷한 문제에 부딪친 주인공이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을 봄으로써 자신의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도구로 그림책을 제시하였다.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교육적 매체로 그림책의 중요성을 시사해 준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현장에서의 그림책의 활용은 유아의 간접경험 제공을 통해 유아의 세계에 대한 경험을 확장하도록 도울 것이라 기대한다.

다섯째,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늙어간다' 우리는 태어나서 자라고 성인이 되고 늙게 된다. 이런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인생의 순리이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점점 나이를 먹어가고 늙어가는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Smilansky(1987)에 의하면 노화성에 대한 이해는 유아로 하여금 죽음에 대한 개념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이고, 유아가 죽음에 대하여 인지적·정서적으로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고 하였다. 유아들에게 할아버지·할머니는 늙어서 죽음을 맞이하는 존재이다. 할아버지·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잡지, 책, 앨범에서 여러 시대에 살던 분들의 사진을 보여주거나, 성장, 노화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 노화에 대한 이해를 도울 수 있으며, '효'의 개념도 함께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죽으면 다른 세계로 간다'는 죽음 후의 삶이나 생활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표현 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림책 속에서는 죽음 후에 다른 세상에 간다는 표현으로 또 다른 세계를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신이 존재한다는 표현, 특별한 종교와 관계없이 하늘에 있는 존재로만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송명자(1998)는 초자연적인 대상들(귀신, 도깨비, 마녀 등)은 죽음에 대한 이해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하며, 박현민·윤현민(2008)은 사후 세계에 대한 묘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고 하였다. 사후의 표현은 죽은 후의 다른 세상

에 대한 여러 표현이라고 말한 것처럼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사후의 세계는 유아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요소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유아들은 죽으면 또 다른 세상이 있어 생활한다고 믿고 있다. 이것은 죽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닌 죽음에 대한 인정하는 것이다. 유아에게 죽은 후의 세상이란 안도감, 편안함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일본의 죽음교육처럼 죽음에 대해 더 많이 이해하기, 죽음에 대해 종교적으로 해석하기, 사후세계의 가능성 생각하기 등 다양한 죽음교육의 내용에 대한 교사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는 죽음의 개념이 내포되어 있었다. 죽음의 주요개념인 보편성, 비가역성, 비기능성, 인과성, 노화성, 사후 세계로 구분되어진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는 죽음의 6가지 주요개념이 다양하게 나타나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들의 그림책에서 죽음의 개념은 하나의 개념만으로 설명한 것이 아닌 여러 개념을 포함하여 설명한 것으로도 죽음의 개념은 상호 관련성이 있고 뚜렷한 구별이 어렵다는 선행연구(Smilansky, 1987)의 주장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개념은 유아에게 생명의 탄생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자연의 순환을 가르쳐주는 것이었다. 유아는 죽음을 간접 경험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죽음을 이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는 다양하게 나타났다. 유아는 주변의 죽음을 보기도하고 느끼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서서히 알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책을 통해 유아들이 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죽음의 대상과 죽음의 개념, 죽음의 의미를 알아보았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는 죽음을 다양한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었다. 즉,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

려움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시간', '자꾸만 떠오르는 추억의 시간',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간', '또 다른 삶의 시간'이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첫째, '끊임없이 이어지는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불안함'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은 주변의 모든 것이 떠난다는 것을 말한다. 유아는 죽음을 지각하고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였다. 양진희(2006)과 정경숙(1996)은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유아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나 공포를 느끼지 않는다고 하였다. 즉, 죽음에 관하여 들어본 경험이 있거나 죽음개념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유아일수록 자신의 주변에 발생하는 죽음에 대하여 보다 잘 적응한다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양진희(2006)와 정경숙(1996)의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고립된 시간'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은 아무것도 하기 싫은 무감각적인 '무반응'이다. 주변의 죽음을 통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감각적인 무반응을 나타냈다.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알 수 있었다. 죽음을 정확하게 이해한 유아일수록 슬픔에서 빨리 벗어나 일상생활에 잘 적응하게 된다는 연구(양진희, 2006; 정경숙, 1996)들은 죽음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죽음을 맞이한 유아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슬픔이 크고 슬픔을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을 의미한다. 죽음을 맞이한 상황에서 그 슬픔을 이겨내기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주장한 연구처럼 죽음에 대한 슬픔, 상실감 등에 대한 이해와 원조가 필요한 죽음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자꾸만 떠오르는 추억의 시간'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은 떠나간 사람에 대한 애절한 '그리움'이다. 주변의 모든 것들이 떠나면 보고 싶어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는 떠나간

사람이 남은 사람들의 주변에서 그들을 돌보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것은 남은 사람도 떠난 사람도 그리움을 머금고 있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죽음 후의 세상이 있다고 믿으며 유아는 안정과 편안함을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채마밭의 공주님」에서의 하나와 마테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엄마와 이야기를 하며 생활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죽은 엄마가 옆에서 지켜주고 있고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 이런 엄마의 목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하나와 마테에게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마음의 안정을 찾는데 도움을 주는 요소일 것이다. 사후세계에 대한 이해는 유아에게 안정, 편안함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어쩔 수 없는 선택의 시간'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은 두렵지만 받아들이는 '타협함'이다. 죽음이 두려워 아무 것도 할 수 없던 유아가 죽음에 대한 이해를 하며 조금씩 죽음을 받아들이는 단계, 죽음이 꼭 두려운 것만은 아니며 죽음을 받아들이는 상황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Kane(1979)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 먼저 죽음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이해한 유아는 죽음에 대한 직접, 간접 경험에 처할 때, 심리적, 정서적으로 대처할 수 있다고 하였다. 죽음이라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 이것이 죽음에 대한 타협함이다. 죽음과 장례, 자살, 안락사 등 죽음의 다양함을 이해시킬 수 있는 죽음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간'이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인정함'이다. 죽음을 맞이할 때에는 많은 원인이 있다는 것,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 이것은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이해라고 할 수 있다. Gorden(1979)은 유아에게 죽음에 대해 가능한 빨리 이해시키고 교육해야 한다고 하였다. 성인이 유아에게 어떤 방법으로 이해시키느냐에 따라 유아들이 죽음을 어떻게 이해하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인정하는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유아가 죽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죽음을

이해 한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죽음에 대한 인정은 죽음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Nelson(1979)은 죽음은 삶의 한 부분이라고 하였다.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죽음의 개념인식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을 돕기 위한 도구로, 유아를 이해하고 유아의 생각을 이끌어 내기에 적합한 매체인 그림책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양진희, 2006). 문학적 접근은 유아교육의 매체, 방법, 효과 면에서 그 가치가 우수하다고 하였다(이경우 외, 1997). 이처럼 죽음에 대한 이해를 위해 유아교육현장에서 그림책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또 다른 삶의 시간'이었다.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은 남아있는 가족의 '이겨냄'이다. 우리는 죽음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겪지만 이것을 이겨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이겨냄을 보여주고 있고, 주변의 도움으로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살아 있을 때 했던 것들을 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죽음을 통해 우리는 극복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나만의 슬픔이 아니었다. 가족 모두, 친구, 이웃 등 죽음은 남은 사람들, 모두의 슬픔이었다.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나 자신의 극복, 가족, 주변의 도움에 의한 극복 등 죽음의 극복은 '혼자'보다는 '함께'라는 의미가 들어 있었다. 이것으로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닌 함께 사는 공동체의 삶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죽음의 극복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갖게 하여 행복한 삶을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차미영, 2006).

이를 종합하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의 죽음의 의미는 떠나는 사람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의 시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감각, 자꾸만 떠오르는 추억의 그리움, 죽음은 어쩔 수 없다는 죽음과의 타협, 슬프지만 아름다운 시간의 인정, 또 다른 삶의 시간을 위한 이겨냄이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유아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삶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죽음은 두려운 것만이 아니라는 것, 죽음에 대한 생각의 변화를 찾을 수 있었다.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주변에서 늘 접할 수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우리는 죽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변화를 유아들에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유아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며 죽음을 이해하기위한 죽음교육의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B. 제언

이상의 논의와 결론을 토대로 후속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죽음의 대상과 죽음의 개념, 죽음의 의미를 찾아보았기에 그 결과를 모든 유아들에게 일반화를 시키는데 한계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에 후속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유아의 죽음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이 개발·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유아를 위한 그림책 24권을 사용하여 죽음의 대상, 죽음의 개념, 죽음의 의미를 찾는 것으로 한정되었으나 후속 연구에서는 더 확장된 그림책의 연구가 요구된다. 이를 통해, 유아를 위한 그림책에서 탄생, 사랑, 결혼 등 인간의 삶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살펴보는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며, 유아를 위한 그림책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기초로 유아들의 전인발달을 도모할 수 있도록 죽음교육에 그림책의 활용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강은진·현은자(1998). 환상동화와 사실동화에 대한 유아의 반응 비교연구. **아동학회지**, 19(1), 169-182.

강인언·김영숙(1988). **유아문학교육.** 서울: 양서원.

고영철(2004). 러시아에서의 죽음학과 죽음대비교육, 죽음준비교육: 왜 실시해야 하는가?, **세계의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국제세미나**, 39-59.

권성자(1984). 어린이들의 죽음에 대한 이해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남주(1984). 아동의 죽음개념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대동(2005). 실존주의 상담에서의 죽음의 의미와 상담교육적 기능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김민정(2007). 그림책 관련 활동을 통한 할아버지 할머니에 대한 유아의 인식변화.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상희(1986). 죽음에 대한 어린이의 이해도 및 부모와 교사의 의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세희(2003). **유아교사를 위한 유아문학교육.** 서울: 양서원.

김수미(2010). 그림책의 성인독자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승혜(1990). **죽음이란 무엇인가.** 서울: 창.

김양남(1993). 아동의 죽음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사람·동물·식물의 죽음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영옥·박미자(2007). 유아의 죽음 개념에 대한 교수-학습 방법 연구. **한국유아교육학회, 13**(1), 127-143.

김영천(1997). 학교 교육현상 탐구를 위한 질적 연구의 방법과 과정. **교육학연구, 35**(5).

김윤옥(2000). 유치원에서의 그림책 활용실태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인자(1984). **죽음에 대한 심리적 이해.**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김현경(2006). 그림책에 나타난 곰의 이미지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김현희(2003). **도서치료의 실체.** 서울: 학지사.

김현희·박상희(2009). **유아문학교육.** 서울: 학지사.

노영숙(2009). 그림책에 나타난 학교에 대한 이미지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마쓰이 다다시(1990). 이상금 역(2011). **어린이와 그림책.** 서울: 샘터.

문영석(2005). 해외 죽음학(Thanatology)의 동향과 전망. **종교연구, 39**, 293-313.

박니시(2005).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유아의 자아개념.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미령(2004). 긍정적 자아개념과 관련된 유아용 그림동화책 내용분석.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 청구논문.

박아청·정경숙(2001).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수준과 죽음에 대한 정서경험수준이 죽음의 개념발달에 미치는 효과. **교육심리연구, 15**(4),177-196.

박현경(2006). 그림책의 주인공에 대한 아동의 반응.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박현경·윤현민(2008). 그림책 속에 나타난 죽음. **어린이 문학교육 연구, 9**(2), 25-49.

방수동(2006). 기독교적 죽음교육. 연세대학교 연합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배영기(2006). **죽음에 대한 문화적 이해.** 서울: 한국학술정보.

서정숙·남규(2005). **그림책으로 하는 유아문학교육.** 서울: 창지사.

서현(2003). 문학적 접근을 통한 반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편견감소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서현아(1998). 연령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 인식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학회지, 19**(1), 97-117

서현아·김소연(2001). 그림책을 통한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 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연구, 10**, 87-107.

손경진(2011). 어린이 그림책에 관한 연구: 어린이 그림책의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손승원(1998).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죽음불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송명자(1998). **발달심리학.** 서울: 학지사.

신세니·조희숙(2008). 배빗 콜의 그림책에 나타난 유머 분석. **유아교육학회, 28**(6), 229-252.

신세니·조희숙(2009). 그림책에 나타난 노인 이미지 분석. **유아교육연구, 29**(5), 287-314.

신혜선(2005). 교사능력의 중요도와 준비도에 대한 교사의 인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심성겸·김경희·변길희·김나림·최대훈·박주희(2007). **영유아를 위한 교수매체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학지사.

양진희(2006). 유아의 죽음개념 교육에 대한 교사의 인식. **아동학회지, 27**(3), 1-27.

양진희(2007). 문학적 접근을 통한 죽음개념 교육이 유아의 죽음에 대한 인식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열린유아교육연구, 12**(4), 49-74.

원계선·최일선(2004). 그림책을 활용한 반 편견 교육활동이 유아의 장애 수용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특수교육연구, 11**(2), 447-466.

유수경·정명숙·송주연(2008). 그림책 속에 나타난 친구관계 유형과 우정의 의미 탐색. **열린유아교육연구, 13**(3), 39-67.

유애로(1982). 유년기 그림책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윤갑주·지은주·이혜은(2009). 다문화 그림책에 대한 내용분석 및 유아반응-국내 다문화가정을 반영한 그림책을 중심으로. **미래유아교육학회, 16**(4), 45-72.

이관용·이장화(1972). **카운슬링과 심리치료의 이론과 실제.** 서울: 문교부.

이경우(1999). 문학적 접근을 통한 반편견 교육. **어린이교육 창간호**(pp. 15-17). 서울: 대한어린이 교육협회.

이경우·장영희·이차숙·노영희·현은자(1997). **유아에게 적절한 그림책: 유아도서 추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 양서원.

이경주·황혜정·라정란·홍정아·박재순(2006). 좋은 죽음의 개념 분석. **호스피스 교육연구소지, 10**, 23-39.

이기원(1993). 기독교적인 죽음연구.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대균·백경순·송정원·이현경(2006). **유아문학교육**. 서울: 공동체.

이미옥(2009). 그림책에 나타난 직업세계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영자·이종숙·신은수(2005). 그림책 이야기를 활용한 집단게임놀이 프로그램이 유아의 의사소통능력과 행동조절 능력에 미치는 영향. **사회과학연구, 11**, 147-172.

이우영(2006). 유치원에서의 그림책 활동에 대한 실태분석연구. 경기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은해(1990). **아동연구방법.** 서울: 교문사.

이은화·이상금·이정환·이경우·이기숙(1995). **통합적 접근을 위한 Caldecott Medal 수상도서 연구**. 서울: 창지사.

이정희(1988). 아동의 죽음개념 형성 및 그 중재효과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종승(2011). **연구방법론**. 서울: 교육과학사.

이준숙(1992). 아동의 죽음하위개념 발달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찬숙·신혜경·주현경(2010). 그림책을 통한 죽음 교육이 아동의 인터넷 게임 중독, 죽음 개념 및 죽음 불안에 미치는 영향. **유아교육학론집, 14**(6), 251-272.

이찬숙·조메리명희(2009).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 교육이 유아의 죽음개념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한국아동권리학회, 13**(3), 417-437.

이혜진(2006). 그림책에 나타난 경제개념분석: 경제주체 기본경제개념 경제적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동덕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청구논문.

장연집(1998). 아동기 죽음개념의 발달과 충격완화를 위한 비탄치료의 기초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사회과학총론, 4**, 127-147.

장영숙(2005). 그림책과 명화를 활용한 미술프로그램이 유아의 미술 감상능력과 미술 표현능력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6**(3), 97-110.

장혜미(2007). 그림책에 그려진 성인 등장인물에 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장혜순(2007). **유아사회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창지사.

전방실(2001). 그림책을 활용한 토의 활동이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경숙(1985).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인지적 발달과의 관계: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1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경숙(1996).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발달과 인지수준발달과의 관계(Ⅲ). **유아교육, 5**(1), 1-15.

정경숙(1998). 발달수준에 따른 아동의 죽음에 대한 개념과 죽음준비교육에 관한 연구. **대구산업정보대학논문집, 21**, 267-293.

정경숙(2000). 아동의 보존개념 발달수준과 죽음에 대한 정서경험수준이 죽음의 개념발달에 미치는 효과.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정경숙(2001). 아동의 인지적 개념발달이 죽음의 개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유아교육, 10**(2), 81-94.

정대련·이현주(2003). 파이돈 관점에서 본 어린이의 죽음 개념. **어린이문학교육연구, 4**(2), 117-140.

정은미(1999). 종교와 죽음경험유무에 따른 유아의 죽음개념연구.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정동호(2004). 철학 죽음을 말하다. 서울: 산해.

조메리명희(2009). 그림책을 활용한 죽음교육이 유아의 죽음개념 및 죽음불안에 미치는 영향.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조은진·정은영(2002). 문학적 접근을 통한 반편견 교육이 유아의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아동학회지, 23**(4), 83-110.

조희숙(1980). 유치원에서의 동화지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차미영(2006). **웰 다잉을 위한 죽음의 이해.** 서울: 상상커뮤니케이션.

천성문·이영순(2000). **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교문사.

천희영·이귀니·신세니(2009). 유아 성학대 예방교육을 위한 그림책의 내용 분석: 인식적 요소와 대처 행동적 요소를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4**(4), 321-347.

한은주(2009). 유아용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관한 내용분석. 울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현은자·강은진·변윤희·심향분(2004). **그림책의 그림읽기**. 서울: 마루벌.

현은자·김세희(2010). **그림책의 이해 1**. 서울: 사계절.

현은자·김소연(2000). 유아 미술 감상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그림책 활용 조사 연구. **어린이 교육, 2**, 65-82.

황은주(2000). 반편견 그림동화를 통한 문학적 접근이 유아의 성역할 고정관념에 미치는 영향.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Bronson, M, B. (1995). 이기숙·오은순 공역(2002). **신생아부터 8세까지 발달단계로 본 우리아이들의 놀잇감 선택방법.** 서울: 양서원.

Gorden, A. K. (1979). *How to teach children about death.* NJ: Prentice-Hall.

Gorman, M. C. T. (1983). Children's concepts of death and animistic thinking (Doctral dissertation, Univerity of New York, 1983).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44, 2540B.

Kane, B. (1979). Children's concepts of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34*, 141-153.

Kiefer, B. Z. (1995). *The Potential of Picturebooks: From Visual Literacy to Aesthetic Understanding.* Englewood Cliffs, NJ: Merrill. p. 6.

Kim, M. (2001). Korean Kindergarten teacher's attitudes toward death and death education for young children. *Doctoral dissertation,* Columbia University.

Koralak, D. G., Colker, L. J., & Dodge, D. K. (1995). 이기숙· 심성경 (2005). **효과적인 영유아 교육과 보육 어떻게 할 것인가: 영유아 교육기관, 가정보육의 현장 지침서.**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Melear, J, D. (1973). Children's conception of death. *Journal of Psychology, 123*, 254-268.

Morgan, J, C., & Morgan, R, L.(1977). *Psychology of Death & Dying.* New York: Cambridge Book Company.

Nagy, M. (1948). The child's theories concerning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73, 3-27.

Nelson, M. (1979). Children's concepts of death. *The Journal of Genetics Psychology,* 134, 137-139.

Russell, D. L. (1991). *Literature for Children: A short Introduction.* New York: Longman. p. 25.

Shulevitz, U. (1997). *Writing with Pictures: How to Write and Illustrate Children's Books.* New York: Watson-Guptill Publications. p. 15.

Speece, M, W. (1987). The develoment of three components of the death concept.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t Detroit.

Smilansky, S. (1987). On death: Helping children understand and cope. New York: Peterlang Publishing.

Winkel, L., & Kimmel, S. (1990). *Mother Goose Comes First.* Henry Holt & Co.

부 록

1. 분석대상 그림책

2. 그림책 분석 준거표

3. 분석된 그림책 줄거리

<부록 1> 분석대상 그림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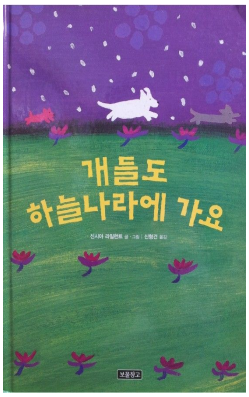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출판 연도
1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	신시아 라일런트	신시아 라일런트	신형건	보물 창고	2007
2	그림자 축제	이케다 아키코	이케다 아키코	강은주	비룡소	2004
3	끝없는 나무	클로드 퐁티	클로드 퐁티	윤정임	비룡소	2011
4	나비엄마의 손길	크리스티앙 볼츠	크리스티앙 볼츠	이경혜	한울림 어린이	2008
5	나이살이	청동말굽	고광삼	한영우	문학 동네	2011
6	내가 가장 슬플 때	마이클 로겐	퀜틴 블레이크	김기택	비룡소	2004
7	내가 함께 있을게	볼프 에를브루흐	볼프 에를브루흐	김경연	웅진 주니어	2011
8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	주디스 바이어스트	에리크 블레그바드	서애경	파랑새 어린이	2003
9	배나무 할아버지	테오도어 폰타네	혼니 호그로기안	유혜자	웅진 주니어	2009
10	살아있는 모든 것은	브라이언 멜로니	로봇 잉펜	이명희	마루벌	2010
11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	에바 에릭손	울프 닐손	임정희	시공 주니어	2011
12	슬픔아, 안녕?	채인선	정은희	채인선	아지 북스	2006
13	안녕, 니콜라!	모르간 다비드	모르간 다비드	이재현	파랑새	2008
14	어떤 느낌일까?	나카야마 치나츠	와다 마코토	장지현	보림	2010
15	오래 슬퍼하지마	글렌 링트베트	샬로테 파르디	안미란	느림보	2008
16	우리 할아버지	존 버닝햄	존 버닝햄	박상희	비룡소	2011
17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	마츠다 모토코	칸노 유키코	최진	아이 세움	2010
18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	파트릭 질송	클로드 두보아	최현덕	크레용 하우스	2003
19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	유리 브레이바르트	피트 브레이바르트	김현희	느림보	2007
20	채마밭의 공주님	안네미 헤이만스	마르그리트 헤이만스	서애경	아이 세움	2010
21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콜레트 엘링스	마리알린 바뱅	이정주	시공 주니어	2010
22	할아버지의 붉은 뺨	하인츠 야니쉬	알료샤 블라우	박민수	웅진 주니어	2011
23	할머니가 남긴 선물	마거릿 와일드	론 브룩스	최순희	시공 주니어	2011
24	휘파람 할아버지	울프 스타르크	안나 회그룬드	최선경	비룡소	2008

<부록 2> 그림책 분석 준거표

번호	분 류
1	도서명 : 제목( )
2	작가 명: 글 작가( ), 그림 작가( ), 역자( )
3	출판사
4	출판년도
5	등장인물 유아( ), 성인( ), 동물( ), 여자( ), 남자( ), 기타( )
6	죽음원인 자연사( ), 질병( ), 사고( ), 기타( )
7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주요개념 범주 보편성( ), 비가역성( ), 비기능성( ), 인과성( ), 노화성( ), 사후세계( )
8	죽음의 대상 조부모( ), 부모( ), 형제· 자매( ), 친구( ), 애완동물( ), 자식( ), 친구부모의 죽음( ), 자신의 죽음( ), 타인( )
9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에 직면하는 당사자의 반응 부정( ), 분노( ), 타협( ), 우울( ), 수용( )
10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을 지켜보는 사람의 반응 인지적 반응- 회상( ), 공상· 환영( ), 혼란( ), 부정( ), 회피( ) 정서적 반응- 슬픔( ), 분노( ), 수용( ), 무반응( ), 그리움( ), 두려움( ) 행동적 반응- 울기( ), 고인과의 추억장소 방문( ), 유품회피( )
11	그림책에 나타난 죽음의 의미 불안함( ), 무반응( ), 그리움( ), 타협함( ), 인정함( ), 이겨냄( ), 기타( )

<부록 3> 분석된 그림책 줄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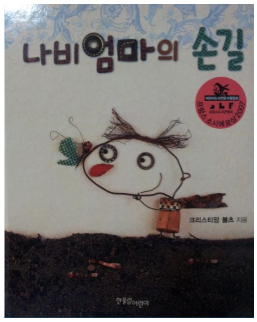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	개들도 하늘나라에 가요(2007)	신시아 라일런트	신시아 라일런트	신형건	보물창고

줄거리	개들이 죽으면 하늘나라로 갑니다. 하늘에서 하느님이 개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줍니다. 개들은 달리기를 할 수도 있고 호수를 구경할 수도 있고 천사 아이들을 만나 놀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개들이 좋아하는 비스켓도 주고 집도 줍니다. 개들은 천사들과 함께 땅에도 다녀올 수 있습니다. 하늘에선 개들이 옛 친구들을 기다립니다. 그들이 바로 천사개입니다. 개들이 죽으면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늘나라에 갑니다. 우리는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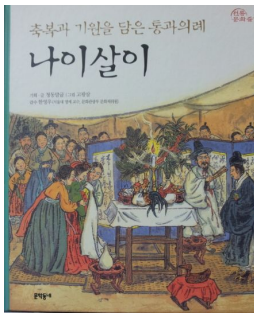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2	그림자 축제(2004)	이케다 아키코	이케다 아키코	강은주	비룡소

줄거리	고양이 다얀은 자기의 그림자(치푸)와 그림자 축제에 갑니다. 그림자 축제는 일 년에 한번 있는 축제의 날입니다. 그림자 축제의 날 죽음의 숲에 사는 노엘이라는 그림자가 축제에 참석한 그림자들을 데리고 죽음의 숲으로 가려고 합니다. 다얀은 축제에 참가하지 않은 지탄과 지탄의 그림자의 도움으로 그림자 친구들을 구합니다. 마을 친구들은 자기 그림자의 소중함을 알게 됩니다. 죽음이란 육체와 영혼의 나눔입니다. 여기는 그림자가 영혼을 의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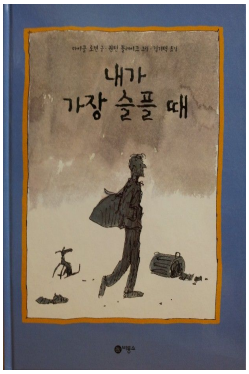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3	끝없는 나무(2011)	클로드 퐁티	클로드 퐁티	윤정임	비룡소
줄거리	이폴렌은 아빠에게 사냥을 배우고 끝없는 나무에 대해 배웁니다. 어느 날 이폴린은 끝없는 나무에서 할머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할머니의 죽음을 통해 이폴린은 생명의 탄생과 가족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이폴린은 아픔을 이기는 방법을 배우고 슬픔을 이겨내는 방법을 배웁니다. 이폴린은 끝없는 나무를 통해 아픔을 이겨내는 용기를 깨닫게 됩니다.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4	나비엄마의 손길(2008)	크리스티앙 볼츠	크리스티앙 볼츠	이경혜	한울림 어린이
줄거리	엄마의 죽음으로 엄마가 없는 아이는 아빠에게 엄마가 어디 있는지 묻는다. 아이는 엄마의 부재로 인해 항상 아빠와 생활한다. 아빠와의 삶을 통해서 항상 엄마가 궁금하고, 엄마가 항상 그립다. 엄마는 땅과 하늘 어디에 있는지, 다른 사람들은 엄마가 땅속, 하늘, 저마다 다르게 이야기 한다. 하지만 아빠는 엄마가 항상 우리 옆에 있다고 아이에게 말하고 있다. 엄마가 항상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 아이는 엄마의 사랑을 느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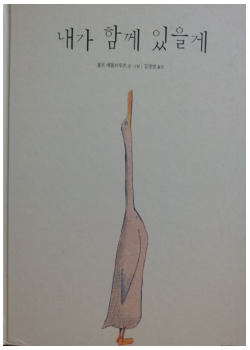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5	나이살이(2011)	청동말굽	고광삼	한영우	문학동네

줄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저마다의 의식이 필요하다. 태어남의 의식, 성인의 의식, 죽음의 의식, 죽은 후의 제사의식, 우리는 태어나고 죽음을 맞이한 후에도 일정한 의식을 지키며 살아간다. 사람이 태어나서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며 우리는 이런 삶을 통해 모든 것에 예의를 갖추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삶의 모든 것은 결코 하찮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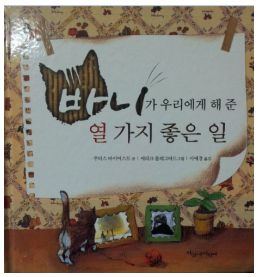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6	내가 가장 슬플 때(2004)	마이클 로젠	퀜틴 블레이크	김기택	비룡소

줄거리	나는 슬픔을 느끼며 삽니다. 그것은 아들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너무도 많은 것을 알게 해줍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슬픔이라는 것을 느낍니다. 슬픔을 잊기 위해 저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찾습니다. 나는 죽은 아들 에디를 그리워하며 만약 에디가 살아 있다면 어떨지 생각합니다. 에디를 떠올리며 에디가 살아 있다면 어떤 삶을 살 것인지를 상상해 봅니다. 생일을 좋아하는 나는 탄생, 축하, 촛불의 소중함을 떠올려 봅니다. 촛불은 나에게 생명과 사랑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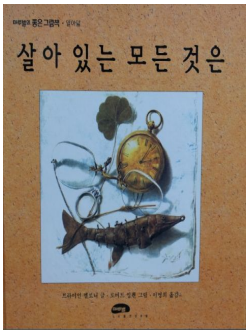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7	내가 함께 있을게(2011)	볼프 에를브루흐	볼프 에를브루흐	김경연	웅진 주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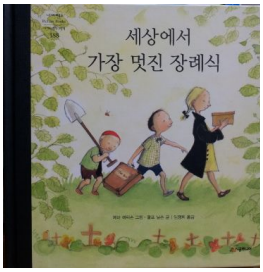
줄거리	어느 날, 오리는 자기 뒤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리에게 죽음이 말하기를 만약을 대비해서 곁에 있다고 합니다. 그 때부터 오리는 생활 속에서 죽음과 친구가 되어 함께 생활을 합니다. 오리는 죽음과 살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다는 것을 느낍니다. 오리는 드디어 죽음을 맞이합니다. 오리의 죽음을 지켜본 죽음은 '그것이 삶'이라고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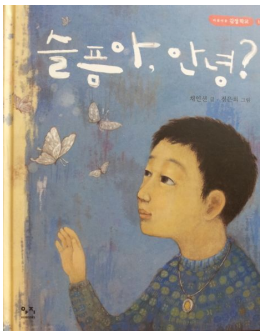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8	바니가 우리에게 해 준 열 가지 좋은 일(2003)	주디스 바이어스트	에리크 블레그바드	서애경	파랑새 어린이

줄거리	고양이 바니가 어느 날, 죽음을 맞이한다. 엄마는 바니가 살아있을 때 우리에게 해 준 10가지 좋은 점을 떠 올려보자고 합니다. 바니가 나에게 해준 10가지 중에는 나를 행복하게 해 준 것도 있지만 죽어서 땅 속에 묻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바니가 우리에게 해준 것은 친구가 되어준 것도 있지만 영원히 우리에게서 잊혀지지 않을 친구라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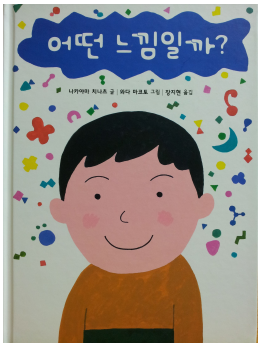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9	배나무 할아버지(2009)	테오도어 폰타네	혼니 호그로기안	유혜자	웅진 주니어
줄거리	리벡 마을의 리벡 할아버지는 배나무 한 그루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이 되면 할아버지는 아이들에게 배를 나누어 줍니다. 어느 해 리벡 할아버지는 죽으면 배 하나와 같이 묻어 달라고 합니다. 리벡 할아버지가 죽자 리벡 마을 사람들은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자 할아버지 아들은 뜰에 울타리를 치고 배나무 가까이 갈 수 없게 합니다. 삼 년이 지나자, 무덤가에는 배나무가 자랍니다. 세월이 몇 년 흘러 무성해진 배나무 잎이 할아버지의 무덤을 덮었습니다. 리벡 마을에는 리벡 할아버지의 축복이 여전히 전해 오고 있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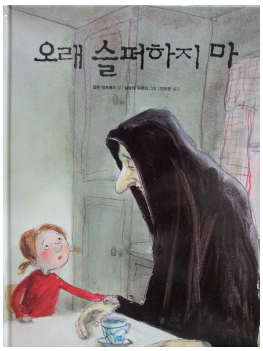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0	살아있는 모든 것은(2010)	브라이언 멜로니	로버트 잉펜	이명희	마루벌
줄거리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다 그렇습니다. 살아 있는 모든 것은 영원히 살지는 못합니다. 가끔 살아 있는 것들은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합니다. 이 세상은 살아 있는 것들도 모두 다릅니다. 얼마나 오래 사는지도 다릅니다. 나무, 토끼, 쥐, 꽃과 채소, 나비, 새, 물고기들. 살아 있는 모든 것들처럼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이 사는 것은 수명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풀도, 사람도, 새도, 물고기도, 토끼도,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이 세상 어디에서나!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1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2011)	에바 에릭손	울프 닐손	임정희	시공 주니어
줄거리	나와 에스테르는 심심해서 죽은 벌에게 무덤을 만들어 줍니다. 에스테르와 나는 세상의 모든 죽은 동물들에게 무덤을 만들어 주려고 합니다. 동생 푸테는 죽음이 무엇인지 묻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푸테를 데리고 '장례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친구들의 죽은 동물들을 위해 아름다운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죽은 동물만 보았던 우리는 지빠귀가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직접 목격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빠귀를 위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장례식을 해줍니다. 우리는 생명의 소중하고 아름다움을 배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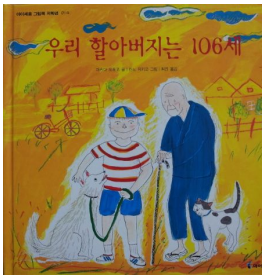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2	슬픔아, 안녕?(2006)	채인선	정은희	채인선	아지북스
줄거리	현우는 구름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몇 해 전 구름이는 현우네 집에 우연히 오게 됩니다. 구름이는 병에 걸려 더 이상 살 수가 없습니다. 엄마와 의사 선생님은 구름이를 안락사 시키자는 하십니다. 현우는 아픔, 병, 친구 등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구름이에게 했던 자기의 행동들을 생각해 봅니다. 현우는 구름이를 떠나 떠내기로 결심합니다. 구름이를 떠나보내고 현우는 슬픔을 느낍니다. 현우는 슬픔을 비맞는 기분이라고 말합니다.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3	안녕, 니콜라!(2008)	모르간 다비드	모르간 다비드	이재현	파랑새
줄거리	친구 니콜라는 두 달 만에 학교에 왔습니다. 나(쥘)는 니콜라가 병원에서 치료하는 것을 우주여행을 준비하는 비행사 같다고 생각합니다. 니콜라는 달나라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니콜라는 아파서 머리카락도 없고 허약합니다. 학교에 나온 뒤로 니콜라는 몸이 더욱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나는 니콜라와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마침내 니콜라는 달나라로 떠났습니다. 나는 하늘을 보며 별들 사이를 여행하고 있을 니콜라를 생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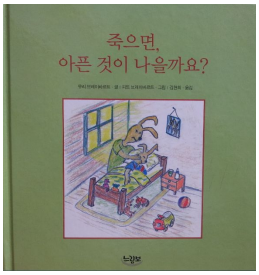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4	어떤 느낌일까?(2010)	나카야마 치나츠	와다 마코토	장지현	보림
줄거리	나(히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마리를 통해 귀의 소중함을 배웁니다. 또한 친구 사노를 통해 듣지 못하면 많은 것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웁니다. 친구 키미는 지진으로 부모님이 돌아 가셨습니다. 나는 키미에게 쓸쓸함이 어떤 느낌인지 묻습니다. 하지만 키미는 부모님이 없다고 쓸쓸한 것만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친구 키미가 나에게 움직일 수 없으면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고 합니다. 오늘도 나는 생각합니다.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장애가 있으니까요.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5	오래 슬퍼하지마(2008)	글렌 링크베트	샬로테 파르디	안미란	느림보
줄거리	네 남매는 작은 식탁에서 검은 옷을 입은 사람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할머니를 데리러 온 것입니다. 아이들은 시간을 끌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죽음은 이야기를 합니다. 슬픔과 눈물의 형제와 기쁨과 웃음의 자매 이야기입니다. 슬픔과 기쁨, 눈물과 웃음이가 서로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사는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 눈물이가 죽자 웃음이도 죽고 기쁨이가 죽자 슬픔이도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음이 말하기를 삶과 죽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죽음이 말했습니다. “마음아 울어라, 하지만 오래 슬퍼하지는 말거라.” 아이들은 죽음이 들려준 이야기를 잊지 않고 할머니를 떠올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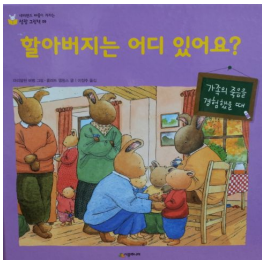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6	우리 할아버지(2011)	존 버닝햄	존 버닝햄	박상희	비룡소
줄거리	할아버지와 나는 봄에 씨앗을 뿌립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여름에는 해변에서 소꿉놀이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가을에는 낚시를 합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겨울에는 눈 내리는 거리를 걸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할아버지는 더 이상 나와 놀아 줄 수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세상에 없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의자를 보면서 나는 할아버지와의 추억을 생각합니다. 할아버지와 보낸 나의 시간은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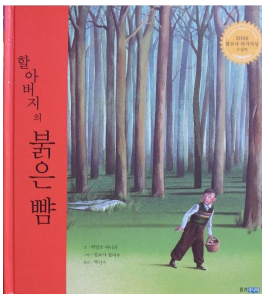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7	우리 할아버지는 106세(2010)	마츠다 모토코	칸노 유키코	최 진	아이세움
줄거리	나한테는 할아버지가 세 분 계십니다.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의 연세는 106세, 나는 6세. 아기가 자라 어른이 되고 아기를 낳아 아빠가 되었습니다. 그 아기가 혼인을 하여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손자가 혼인을 해 아기를 낳자, 증조할아버지가 되었고 증손자가 혼인하여 아기를 낳자, 고조할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 대가 한 집에 모여 삽니다. 며칠 전에 고조할아버지께서 병원에 입원하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나이가 많으셔서 천국으로 가신다고 합니다. 사람은 때가 되면 반드시 죽는다고 합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가 살아온 길이 나에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생명의 끈 위에 서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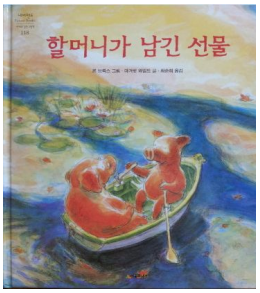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8	저 파란 별이 리사예요(2003)	파트릭 질송	클로드 두보아	최현덕	크레용 하우스
줄거리	친구 리사는 아파서 유치원도 오지 못하고 결석을 많이 합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병원에 있는 리사를 문병 갑니다. 나는 아파서 병원에 있는 리사를 위해 매일 찾아가 유치원이야기, 친구들 이야기 등 리사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리사는 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보며 자기의 마음을 이야기 합니다. 리사가 죽으면 별이 될 거라고 나와 리사는 믿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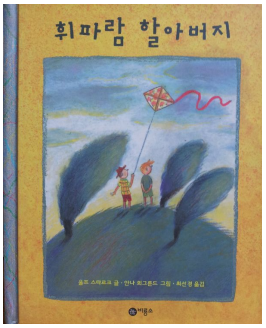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19	죽으면, 아픈 것이 나을까요?(2007)	유리 브레이바르트	피트 브레이바르트	김현희	느림보
줄거리	프레드와 조는 숲 속에 사는 토끼 형제입니다. 어느 날 동생 조가 아팠습니다. 마을에서 이렇게 어린 친구가 아픈 적은 없었습니다. 조의 죽음으로 마을 동물들은 조의 장례를 위해 땅을 파고 관을 만들었습니다. 조의 장례식 후 프레드는 조를 생각하며 화만 냅니다. 동물 친구들은 토끼가족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친구들의 도움으로 토끼가족은 슬픔을 이겨냅니다. 아주 맑게 개인 어느 날, 프레드와 친구들은 조가 죽은 후 처음으로 즐겁게 놀았습니다. 오랫동안 듣지 못한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20	채마밭의 공주님(2010)	안네미 헤이만스	마르그리트 헤이만스	서애경	아이세움
줄거리	하나는 열두 살, 마테는 여덟 살, 두 아이는 엄마를 잃었습니다. 아빠도 부인을 잃었습니다. 그 뒤로 오랫동안 하나는 '어린 엄마'가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는 엄마를 잃고 동생을 돌보지만 엄마를 그리워하며 엄마가 살아있을 때 가꾸던 채마밭으로 갑니다. 엄마의 방에 있던 물건을 하나하나 채마밭으로 옮겨 오며 엄마를 추억합니다. 채마밭에서 지내고 있던 하나는 마테, 아빠와 만나 모두 엄마를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자기의 일만 하는 세 가족이 이제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21	할아버지는 어디 있어요?(2010)	콜레트 엘링스	마리알린 바뱅	이정주	시공 주니어
줄거리	나(아네스)는 외할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엄마 아빠는 눈물을 흘리십니다. 나는 엄마와 아빠 할머니가 슬퍼하는 이유를 잘 모릅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나는 엄마와 아빠, 친척들과 함께 할아버지의 죽음을 봅니다. 할아버지의 장례식을 통해 '관'이라는 것을 보고 죽음과 삶에 대해 배웁니다. 시간이 흘러 할아버지 무덤에는 장미가 피어났습니다. 우리는 할아버지를 떠올리며 살아갑니다.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22	할아버지의 붉은 뺨(2011)	하인츠 야니쉬	알료샤 블라우	박민수	웅진 주니어
줄거리	할아버지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서랍의 물, 벌꿀 케이크, 배꼽, 축구, 학교, 전쟁, 할머니 릴리를 만난 이야기, 겨울 산의 눈 사나이 이야기, 전쟁에서 집에 오는 이야기, 동굴에서 이상한 동물을 찾은 이야기. 여든 살이 지나고 할아버지는 점점 창백해지면서 어릴 때처럼 두 뺨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너무 창백해서 곁에 있는지조차 알기 어려웠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겁니다. 하지만 나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 뺨도 붉어집니다. 할아버지와 나는 무척 즐겁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상 내 곁에 계시니까요.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23	할머니가 남긴 선물(2011)	마거릿 와일드	론 브룩스	최순희	시공 주니어
줄거리	할머니 돼지와 손녀 돼지는 오래 함께 살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죽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반납하고, 은행에서 돈을 찾고, 외상값도 갚고, 집에 돌아 온 할머니는 손녀에게 돈을 주며 현명하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을 거닐며 나무와 꽃, 하늘, 모든 것을 눈으로 즐기고 싶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보고, 듣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집으로 돌아와서 조용히 마지막을 맞이했습니다.				

번호	도서명(출판연도)	글작가	그림작가	역자	출판사
24	휘파람 할아버지(2008)	울프 스타르크	안나 회그룬드	최선경	비룡소
줄거리	외할아버지가 있는 나(우페)는 베라(베틸)에게 양로원으로 가서 가짜 외할아버지를 만들어 줍니다. 우리는 할아버지와 함께 재미있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습니다. 연날리기도 하고 생일잔치 준비도 합니다. 할아버지와 함께 우리는 나무위에 올라가 보고 버찌도 먹고 생일선물도 드립니다. 돌아오는 길에 우리는 할아버지에게 휘파람 부는 법을 배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할아버지를 찾아가지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할아버지 장례식에 참석하여 할아버지에게 배운 휘파람을 붑니다. 할아버지장례식을 마치고 우리는 연날리기를 하며 할아버지를 생각합니다.				

감사의 글

논문을 마무리하며…….

논문을 시작할 때는 막연함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하려고 하니 감사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먼저 항상 용기와 칭찬으로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서 현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너무 귀찮게 해드렸지만 항상 용기를 주시고 칭찬을 해주셔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많은 격려와 칭찬을 해주신 박주성 교수님, 나장함 교수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관점에서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게 지도해 주셔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논문을 읽어주시고 좋은 말씀을 해주신 윤경아 교수님, 송선화 선생님, 정은숙 선생님, 임지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좋은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학원 시작부터 지금까지 지켜봐 주시는 부모님과 가족들, 그리고 논문을 쓰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김진흥 선생님, 범영 선생님, 김정하 선생님, 정채경 선생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 선후배님을 생각하며 감사의 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 논문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2012년 6월

김영보